

DJDI

대전광역시 자치구 문화향유 차이 분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박노동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의 전체적인 문화향수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문화복지 정립이 요구됨
- 문화자원의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문화영역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정책의 이념이 수요자적 관점에 대한 강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문화격차의 양상은 계층적 속성과 사회적인 과정의 결과로써 나타남
- 대전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동시에 지역내 소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발권에 역점을 둘 필요성 제기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대전시민의 문화격차의 구조적인 원인과 기제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향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모색코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 문화격차 현상의 발현에 대한 개념론 검토
- 대전시 문화기반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 및 수요자 중심의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 설문조사를 통한 대전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격차 분석
- 시민의 문화수요와 욕구 분석, 문화기본시설 설치 구상 시 나타나는 정책적인 방향에 수반되는 사항 제시

○ 연구 방법

- 문화격차 현상에 대한 발생원인, 완화방안에 대한 논리개발을 위한 문헌검토
- 문화향유 실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진행
- 실천적 방안 강구 방식 채택

2. 연구결과 : 주요 연구내용

■ 문화격차에 대한 논의 검토

○ 문화수준 측정

-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대상이자 목적임
- 문화향수는 삶의 질을 좌우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어린 시절의 예술교육이 아이들의 지능이나 창의력, 사교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문화지표를 통한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차이 분석 필요

○ 문화기반시설의 의미와 기능

- 문화기반시설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삶의 다양성, 다양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문화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총체적 공간으로 정의됨

시설의 기능		시설규모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중소규모 문화기반시설	생활권시설
창조의 공간	창작과 생산활동, 감상과 교육활동	시설 단위	거점시설	예술시설	생활문화기반시설
		설치 단위	국가·도시	민간	공공
교류의 공간	예술적 가치의 교류와 상호작용	설립 주체	국가·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재단	기초지자체·지역 개발사업자
집적의 공간	흡입과 발산의 창구	시설 입지	거점지역(상징지역) 도심이나 밀집지역	밀집지역, 도심	생활권(기초지자체별)
전달의 공간	교육과 커뮤니 케이션, 전수활동	주요 역할	주요장르의 발표/전시 세계와의 교류	예술품의 발표/전시, 소비자와의 교류	문화교육 및 체험 시민과의 교류
		주요 기능	국가적인 문화력 상징	예술의 시장적 가치 창출	시민문화권 향상

○ 문화격차의 정의 및 요인

- 문화격차란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향수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이라고 정의함

요인		발생원인	대안의 예
객관적 요인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으로 인해 문화비 지출 여유가 없음 · 생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 소득공제제도 · 관람·입장료 할인 제도 · 문화바우처 활성화
	지리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거리 · 집적 효과 ·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문화시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인프라 우선지원 ·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균형발전
	신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접근성 제고
주관적 요인	사회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 · 적절한 문화콘텐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터제 등 적극적 조치 · 표현 기회 확대
	문화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문화체험 부족 · 문화해득력 부족 · 관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강화
	심리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부담 · 소외감 · 문화적 소비에 대한 거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문화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 국외 연구사례 검토

구분	연구 내용	
거시차원의 연구	문화격차 현상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 연구	
	Bawden, 2002	뉴미디어나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
	DiMaggio and Mukhtar, 2004	사회자본의 쇠퇴, 가족구조의 변화, 문화예술기술의 변화 등 전반적인 추세흐름을 거시적 조망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감소현상을 다루는 연구
	DiMaggio, 1987	문화분류 연구는 문화상품서비스의 생산분배 구조와 문화 취향을 중심으로 거시차원의 문화분류체계(artistic classification systems)를 보임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0; 2003; 2006	문화격차 혹은 문화향수 실태 보고
미시차원의 연구	문화격차의 개인별 특성 분석	
	미시차원에서 문화격차에 대한 요인	사회경제적 변수 : 소득 사회 인구학적 변수 : 성별, 나이 지리변수 : 지역 사회 인구학적 변수 : 교육, 성별, 나이, 신체장애나 인종 교육변수 : 어린시절 경험, 부모의 습관, 교사

- 국내 연구사례 검토

구분	연구내용	
문화격차의 일반적 원인·실태연구	박용치, 2003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문화유산,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원, 문화의 거리를 포함하는 문화인프라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공연회수, 전시회수, 출판사, 인쇄소, 지역문화축제를 포함한 문화소프트웨어의 개수, 그리고 문화예산 등을 ‘문화지표’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문화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개수와 이것이 인구 10만 명 당 몇 개의 비율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쳐 경제적 장애에 따른 문화접근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
문화교육프로그램의 격차 현상에 관한 연구	박낙중 외, 2008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자본의 형성에 공공문화기반시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
		문화 활동을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음악회 방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정철현&황소하, 2010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미성년기 예술교육보다는 성년기 예술교육이 더 유의함을 보여줌
		교육의 내용이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 즉 문화예술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김명혜, 2002 유진선, 2008	백화점 문화센터의 문화강좌와 수강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백화점 문화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강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백화점 문화강좌 수강이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자아정체성과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한 종류의 문화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여러 종류의 문화기반시설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강좌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대전의 문화격차 현상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며, 실증 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므로, 대전시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 향수실태조사에 근거해 문화격차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정책과 문화기반시설 실태 분석

○ 대전시 문화정책 추진 실태

- 대전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국의 문화예술과 및 체육지원과, 문화재종무과, 관광진흥과가 있고, 문화예술과안에 문화정책, 예술진흥, 공연예술, 문화시설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각 구에서는 문화관련부서의 문화예술계가 조직되어 구별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법 및 조례

- 공연법 (개정 : 2002. 1. 26.)
- 도서관법 (개정 : 2009. 3. 25.)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 2002. 12. 18.)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2003. 5. 27.)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2009. 6. 6.)
- 문화재보호법 (개정 : 2009. 6. 9.)

○ 선행계획 검토

-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2012) 대전광역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오는 2017년까지 5개년 간 기 구축된 문화예술자원의 활성화·고품격화 및 신규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8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을 제시함
- (대전비전2030, 2011)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과 더불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대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도시기반 등 각 분야별 2030년 대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발전전략을 제시

○ 대전시 문화기반시설 분포 특성

- 대전광역시가 2015년 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시설 67개, 전시시설 59개, 도서관시설 238개, 문화보급전수시설 12개로 모두 376개임

■ 대전시 문화격차 조사 결과 분석

○ 문화기반시설의 격차 분석

- 2015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대전은 54개 시설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의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23개관, 박물관 및 미술관 20개관, 문예회관 3개관, 지방문화원 5개, 문화의집 3개소 등 총 54개소가 설립·운영됨
- 입지계수에 의해 대전시 문화기반시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관 0.82, 박물관·미술관 0.66, 문예회관 0.43, 지방문화원 0.73, 문화의집 0.86 등으로 전체는 0.71로 계측됨
- 다른 시도의 인구규모와 비교할 때 시설수는 광역시 중에서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광역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함
- 문화기반시설의 분포상태를 자치구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시설수 기준으로 입지계수를 산출한 결과 지역별 전체 시설의 입지계수를 보면 동구가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덕구(1.40), 유성구(1.23) 순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인구규모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와 달리, 중구(0.54), 서구(0.68)는 낮은 입지계수를 나타냄으로서, 인구규모에 비하여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로 보면 평균 입지계수가 1.07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교적 많은 수의 문화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변이계수가 0.40으로 높지 않아서 대전시의 문화기반시설이 인구분포상태와 비교할 때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정도가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대전시민 문화격차 인식 조사 결과

- 대전시 문화격차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대전 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

-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호와 신장
 - 고령층에 대한 문화정책 확대 추진
 -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 향상
 - 소수집단의 정체성 및 다양성 보호
- 문화향수 저변 확대
 - 여가기반시설 조성 필요
 -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 및 다양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방향 전환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문화비용에 대한 지원과 보조
 - 소외 계층에 대한 여건 고려
 - 문화비용에 대한 지원

■ 문화예술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 대전광역시의 확충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OECD, UNESCO,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지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거점도서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건립 기준 포함)에 의거하되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전광역시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추진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의 생활권별 개발계획(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기 건립·운영되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신설보다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설과 인력 활용은 관내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함

○ 추진전략

- 대전광역시 단위에서 필요한 거점 문화기반시설(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시립국악원 등)은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상 대생활권 개념에 기초해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함
- 중규모 문화기반시설(지역 도서관, 구민문예회관, 문화원 등)은 중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문화기반시설수요에 따라 시설 확충
-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소규모 공연장 및 복합문화체험센터, 문화의 집, 마을문고 등)은 소생활권역 주민들의 시설접근성을 고려하고, 소생활권의 중심지역(인구 및 주거 밀집지역 등)을 축으로 해서 시설 확충
- 사업의 우선순위는 일차적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수요에 따라 설정하되 향후 대전광역시의 개발계획(도안신도시 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 신설되는 문화예술시설의 프로그램 개발·관리·운영 개발은 대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문화예술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문화·전시시설 공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생활권은 신탄진, 신대, 오정, 중리 생활권으로, 대부분 도시기능쇠퇴 지역이 밀집된 경부축상에 분포하고 이들 생활권의 문화서비스의 공급은 지역격차 해소에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원도심권과 진잠부도심권을 연계하는 유천생활권과 도마생활권, 유성부도심지역, 그리고 동남부의 거점지인 판암생활권에 문화·전시시설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신규개발을 추진할 때는 계획초기부터 생활권 차원의 문화기반시설 공급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문화기반시설공급 방안으로 생활권에 적합한 문화기반시설로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규모로 문화활동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유형의 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고, 대학의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유

휴공급시설과 학교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생활권에 확충하여 균형적인 문화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기반시설 종류별 입지실태와 향후 확충 방안

- 도서관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생활권별로 인구기준에 의거하여 필요관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은 생활권의 중심권을 고려하되, 광역대도시 인구기준에 의거하여 필요관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전략

- 대전광역시 단위의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등)의 프로그램은 고급 문화예술 향유층을 대상으로 기획한 수준 높은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함
- 대전광역시 단위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시립국악원 등)을 제외한 중생활권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거점 문화예술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은 각 생활권별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
- 소생활권역 주민들의 생활과 연계된 소규모의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소규모 복합문화체험센터, 문화의 집, 마을문고 등)은 소생활권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충하되, 기존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 대·중·소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기반시설 간에는 문화예술 인력 및 정보(문화예술행사)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한 지역에서 기획된 문화예술이벤트를 순환 공연·전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중·소생활권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에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시설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생활권별 특성을 살린 독창적

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

- 소생활권 주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의 문화 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강화
- 동네 문화예술 정보 집적지로서의 소생활권역 문화기반시설 간 정보 네트워크 기능 강화

■ 문화향유격차 해소 및 문화 진흥 방안

○ 세부추진방안 및 실천 과제

세부추진방안	실천 과제	
참여하는 문화예술 향유	1-1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확대
	1-2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1-3	다문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1-4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1-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 향유여건 개선	2-1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2-2	마을도서관 운영 활성화
	2-3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2-4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2-5	대전둘레 산길잇기 지원
	2-6	열린 문화공간 조성
	2-7	지역 문화통화 유통체계 구축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3-1	최저 문화복지 기준 설정 및 문화복지정책 연계
	3-2	문화바우처제도 확대 및 운영체계 개편
3개 추진방안	14개 실천 과제	

- 목 차 -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 2 장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검토	11
제1절 문화수준 측정	11
제2절 문화기반시설의 의미와 기능	21
제3절 문화격차론	27
제4절 문화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32
제 3 장 문화정책과 문화기반 지표 분석	43
제1절 대전시 문화정책 추진 실태	43
제2절 대전시 문화기반시설 분포 특성	55
제 4 장 대전시 문화격차 조사 결과분석	65
제1절 문화기반시설의 격차 분석	65
제2절 대전시민 문화격차 인식 조사 결과	76
제3절 해외 문화격차 해소 정책 사례	127
제 5 장 대전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135
제1절 문화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135
제2절 문화예술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 방안	143
제3절 문화향유격차 해소 및 문화 진흥 방안	155
참 고 문 헌	195
부록 : 설문지	197

- 표 목 차 -

〈표 2-1〉 문화지표의 관련 개념	18
〈표 2-2〉 시설규모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역할	23
〈표 2-3〉 문화격차의 요인 및 대안	31
〈표 3-1〉 대전시 문화관련 예산	44
〈표 3-2〉 문화분야 법률 제정·개정 현황(2009)	50
〈표 3-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련 조례*	51
〈표 3-4〉 대전시 문화예술 시설 현황	55
〈표 3-5〉 공연시설 현황 (2015. 1. 현재)	56
〈표 3-6〉 야외 공연시설 현황 (2015. 1. 현재)	56
〈표 3-7〉 전시시설 현황 (2015. 1. 현재)	57
〈표 3-8〉 대전광역시 문화원 시설 현황 (2015. 1. 현재)	61
〈표 4-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65
〈표 4-2〉 대전광역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66
〈표 4-3〉 2013~2014 주민등록인구(대전) 및 자치구 면적	67
〈표 4-4〉 시설별 분포의 입지계수 비교(시도별)	68
〈표 4-5〉 대전시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 입지계수(시설수 기준, 2015년)	70
〈표 4-6〉 대전시 도서관 1관당 인구수	71
〈표 4-7〉 대전시 도서관 원단위 분석	72
〈표 4-8〉 대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원단위 분석	73
〈표 4-9〉 대전시 문예회관 원단위 분석	74
〈표 4-10〉 대전시 문화원 원단위 분석	75
〈표 4-11〉 자치구별 표본 할당	76
〈표 4-12〉 설문내용	77
〈표 4-13〉 표본 특성	78
〈표 4-14〉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평일)	97
〈표 4-15〉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주말)	97
〈표 4-16〉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00

〈표 4-17〉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1순위)	101
〈표 4-18〉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2순위)	102
〈표 4-19〉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3순위)	102
〈표 4-20〉 지난 1년간 예술행사 관람경험 (관람률)	103
〈표 4-21〉 현재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경험 유무 및 활동 분야	109
〈표 4-22〉 지난 1년 동안 시설의 이용 횟수(이용률)	110
〈표 4-23〉 학교 교육 이외에 관련 강좌나 강습 받았는지 여부 및 내용	118
〈표 4-24〉 문화예술관련 강좌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	120
〈표 4-25〉 문화기반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121
〈표 4-26〉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1순위)	125
〈표 4-27〉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2순위)	126
〈표 4-28〉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3순위)	126
〈표 5-1〉 광역시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143
〈표 5-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기반시설 최소기준(향후 10년간)	143
〈표 5-3〉 2011년 · 2016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최소기준	145
〈표 5-4〉 공공도서관 추가건립 설정기준	149
〈표 5-5〉 공공도서관 연차별 확충(안)	149
〈표 5-6〉 박물관 · 미술관 추가건립 설정기준	151
〈표 5-7〉 박물관 · 미술관 연차별 확충(안)	151
〈표 5-8〉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170

- 그림 목 차 -

〈그림 3-1〉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국 조직도	43
〈그림 3-2〉 공연장의 객석수 구별 분포	58
〈그림 3-3〉 영화관 구별 분포	59
〈그림 3-4〉 영화관 스크린수 분포	59
〈그림 3-5〉 영화상영관 객석수 분포	60
〈그림 3-6〉 박물관 구별분포	60
〈그림 3-7〉 문화재 분포	62
〈그림 4-1〉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구비 정도	80
〈그림 4-2〉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이 많은가	81
〈그림 4-3〉 현재 거주 지역에 문화강습 및 강좌가 많은가	81
〈그림 4-4〉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가	82
〈그림 4-5〉 현재 거주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가	83
〈그림 4-6〉 현재 거주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시 부족한가	83
〈그림 4-7〉 거주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 정도	84
〈그림 4-8〉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 연평균 참여 횟수	85
〈그림 4-9〉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평가	85
〈그림 4-10〉 대전에서 개최된 축제에서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점	86
〈그림 4-11〉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 평균횟수	87
〈그림 4-12〉 조깅/마라톤/산책 한 달간 빈도	88
〈그림 4-13〉 자전거타기 한 달간 빈도	89
〈그림 4-14〉 볼링/탁구 한 달간 빈도	89
〈그림 4-15〉 구기종목 한 달간 빈도	90
〈그림 4-16〉 등산 한 달간 빈도	90
〈그림 4-17〉 골프 한 달간 빈도	91
〈그림 4-18〉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 한 달간 빈도	91
〈그림 4-19〉 노래방 한 달간 빈도	92
〈그림 4-20〉 클럽에서 춤추기 한 달간 빈도	92

〈그림 4-21〉 종교/봉사활동 한 달간 빈도	93
〈그림 4-22〉 동호회 모임 참가 한 달간 빈도	93
〈그림 4-23〉 창작활동 한 달간 빈도	94
〈그림 4-24〉 강좌수강 한 달간 빈도	94
〈그림 4-25〉 현재 거주 지역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환경 만족도	95
〈그림 4-26〉 거주 지역 여가활동 시설의 구비 정도	96
〈그림 4-27〉 현재 거주 지역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접근성	98
〈그림 4-28〉 대전시의 지역간 여가여건 및 생활체육 격차	99
〈그림 4-32〉 문학행사 평균관람횟수	104
〈그림 4-33〉 미술 전시회 평균관람횟수	104
〈그림 4-34〉 클래식·음악회·오페라 평균관람횟수	105
〈그림 4-35〉 전통예술 평균관람횟수	105
〈그림 4-36〉 연극 평균관람횟수	106
〈그림 4-37〉 무용 평균관람횟수	106
〈그림 4-38〉 영화 평균관람횟수	107
〈그림 4-39〉 대중가요콘서트·연예 평균관람횟수	107
〈그림 4-37〉 지난 1년동안 관람하신 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108
〈그림 4-41〉 대전지역에서 관람한 예술행사의 보완점	108
〈그림 4-4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점	109
〈그림 4-43〉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평균이용횟수	110
〈그림 4-44〉 대전시민회관 평균이용횟수	111
〈그림 4-45〉 대전시립미술관 평균이용횟수	111
〈그림 4-46〉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평균이용횟수	112
〈그림 4-47〉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평균이용횟수	112
〈그림 4-48〉 문화원 평균이용횟수	113
〈그림 4-49〉 도서관 평균이용횟수	113
〈그림 4-50〉 박물관 평균이용횟수	114
〈그림 4-51〉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114
〈그림 4-52〉 대전시민회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115
〈그림 4-53〉 대전시립미술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115
〈그림 4-54〉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116

〈그림 4-55〉 문화원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116
〈그림 4-56〉 도서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117
〈그림 4-57〉 박물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117
〈그림 4-58〉 강좌나 강습을 받은 기관 및 장소	119
〈그림 4-59〉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122
〈그림 4-60〉 거주 지역 및 인근의 문화 여건 구비 정도	122
〈그림 4-61〉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 격차	123
〈그림 4-62〉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격차에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	123
〈그림 4-63〉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124
〈그림 5-1〉 도서관 분포현황 및 우선 건립지 설정	148
〈그림 5-2〉 박물관 분포현황 및 우선 건립지 설정	150
〈그림 5-3〉 문예회관 분포현황 및 우선 건립지 설정	153
〈그림 5-4〉 문화격차해소 및 문화진흥방안 기본목표 및 전략도	155
〈그림 5-5〉 대전산길 연결경로	183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문화정책에 있어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주요한 특성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 및 보편적 문화 향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 문화향수를 포함한 문화복지 욕구의 충족이 전체 시민의 보편적인 문화향수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립되려면 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간내 문화격차의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화격차는 지역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하에서는 정책의 성과를 거양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 최근, 지역의 문화격차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이러한 격차의 정도를 좀더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시행되고 있음은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움직임에 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문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선언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문화자치 실현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현황과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와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과 문화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문화를 기본 권리로 선언한 「문화기본법」에서도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확한 측정지표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대전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동시에 지역내 소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문화자원의 공급은 타시도에 비하여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내 문화격차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대안 및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대전은 이미 도시가 발전하면서, 구도심과 원도심간 문화 향유의 차원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 아울러 대전시의 체계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 또한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요소 측정항목을 개발하고, 문화수요자 관점에서의 문화향유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격차의 구조적인 원인과 기제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향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 구체적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민의 기초자치구별 문화격차가

있음을 가정하고, 대전시민의 문화향수와 문화기반시설 격차 실태를 분석코자 한다.

- 둘째, 문화격차의 비교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개 영역으로 나누되 문화향유를 중심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다.
- 셋째,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과 시민 수요에 대한 수요자적 관점을 강조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화격차 해소의 정책적인 방향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공간적 차원에서의 문화격차 현상의 발현에 관심을 두고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화격차 현상 발현에 대한 개념론을 검토하였다.
 - 개념론 검토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는 문화격차와 관련한 문화활동 및 문화기반시설의 범위와 내용 정의에 관련한 논의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 논의 검토에 따라 문화격차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을 설계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존 논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문화격차 실태와 해소방안에 관련된 사례와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 대전시 구별 문화 현황을 문화정책 요인을 적용하여 파악코자 하였다.
 - 문화행정 차원에서 대전시 5개구의 지역문화 정책, 지역문화 활동, 지역문화 향유 등 각 구별 문화공급 여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문화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확대, 유지, 보완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의 목적, 수단, 대상자 등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 대전시 문화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대전시 문화기반시설의 분포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전시 각 자치구의 문화향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전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격차를 분석하였다.
 - 대전시민의 여가활동, 미디어 문화 향수 및 취향,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 예술교육 경험 등을 자치구별로 실태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 시민의 문화수요와 욕구 분석, 문화기반시설 설치 구상 시 나타나는 정책적인 방향에 수반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 시민 일반의 수요에 초점을 두고, 문화 수요에 격차가 나는 제 요소들을 추가로 점검하였다.
- 문화 격차 해소의 정책과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차원을 점검하였다.

2. 연구 방법

- 문화격차 현상에 대한 발생원인, 대응하는 완화방안 등에 대한 논리개발을 위하여 문헌검토를 하였다.
- 문화향유 실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본 보고서에 반영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문헌검토,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하여 발견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전략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 상기와 같은 논리개발, 실증적 연구 결과 및 정책방안 도출은 일반적인 학문적 접근보다는 활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구체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제 2 장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검토

제1절 문화수준 측정

제2절 문화기반시설의 의미와 기능

제3절 문화격차론

제4절 문화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제 2 장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검토

제1절 문화수준 측정

1. 문화의 개념

- 문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 첫 번째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사회나 집단에서 공유되는 태도, 가치관, 관습,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 두 번째, 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서의 문화란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산물로 전통문화유산, 예술, 문화콘텐츠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 세 번째, 상징체계로서의 문화는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3가지 정의 중에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소위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념인 문화복지, 문화권, 생활문화 등이 이러한 문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이다.
 - 다른 한편으로 생활양식은 예술창작활동이나 문화산업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한다.
- 또 다른 의미로서의 문화향수는 삶의 질을 좌우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예술교육이 아이들의 지능이나 창의력, 사교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문화적 측면, 문화향수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이러한 계층적 속성을 지니는 문화향수는 때로는 공간적 계층적 불평등을 생성하거나, 주거공간 및 계층에 영향을 받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있게 된다.

2. 문화지표의 개념

- Raymond Bauer의 사회지표에 대한 고전적 정의 이후 사회의 가치와 목표로서의 규범을 삶의 질과 복지수준으로 대체하거나, 사회변동 모형을 전제로 지표의 규범을 이론적 모형으로 대체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 그후 지표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중심으로 지표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지표는 “한 사회의 문화현상과 문화수준 및 이를 둘러싼 문화환경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그 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지표는 문화현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유네스코 문화지표 자문관인 Louis Bohner는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s)를, “문화발전의 한 특수한 국면에 대해 정확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규범적인 통계수치”¹⁾라고 규정했다.
 - 정확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표의 대표성인 타당도나 신뢰도를 강조한 것이지만, 규범적인 통계수치라는 것은 지표의 또 다른 특성인 응용성 및 실제성을 나타낸다.
 - 문화지표는 문화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책목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1) 백선복, “초점 :문화통계-문화지표란 무엇인가”, 문화예술 1987년 1월호, 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87.

- 제반 지표는 양적인 정도를 가늠하는 계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현상은 양적인 측면만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질적 측면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 문화현상에는 이미 ‘삶의 질’이라는 질적인 측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지표는 이러한 문화현상을 가능하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문화지표는 계량화된 통계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화통계(Cultural Statistics)’라는 용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 사실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문화지표의 경우에는 문화통계라는 용어가 더 흔히 사용되고 있다.
 - 학술적 영역에서 문화지표체계를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로 부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다.
 - 문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사실 방대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 영역과 대상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연구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문화지표의 문화 개념 역시 문화정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문화정책의 영역을 통해서 문화의 영역을 살펴볼 수 있다.
 - UNESCO는 문화지표 속에 문화적 유산, 인쇄물 및 문예,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 영화 및 사진, 방송, 사회문화활동, 체육 및 오락, 자연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개발한 문화지표(1986)와 이를 모델로 문예진흥원이 작성한 『문화예술통계』에서는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회문화적 활동, 대중매체,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 문화부 직제규정에 따른 문화행정의 범위는 문화재, 생활문화, 지역문화, 조형예술, 문학, 영화, 음반, 도서출판, 어문, 도서관, 박물관, 저작권, 국제문화교류, 종교에 관한 업무 등이다.

-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문예진흥법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어 1994년 개정된 문예진흥법은 “사진, 건축, 문화산업”을 더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대중문화)의 영역까지 문화의 영역을 확대발전시켰다.²⁾
- 여기서도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정책은 문화를 문화예술이라는 용어와 동일시하여 문화정책상의 문화는 미적 창조활동으로서의 문화, 즉 예술과 같은 범주로 이해된다.

○ 우리나라의 문화지표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UNESCO의 규정을 따른다.

-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의 정신적·물질적·지적·정서적인 특징들의 총체로 고려될 수 있다.
- 예술, 언어, 문학에 추가해서, 문화는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그리고 신념들을 포함하고있다.”³⁾고 하여 총체론적 입장에서 넓은 의미로 문화를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정의 속에는 본능에 의거한 행동을 제외한, 상징행위에 의거한 일체의 인간행동 및 그 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 상징 행위에 의거한 행동은 인간 고유의 것이고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의 결과인 물질문화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또한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특징지우는 지적인 성취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지표는 사회문화 현상의 현재의 상태를 지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화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여건 또는 환경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모으기 위해 가시적으로 관찰가능한 문화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⁴⁾

2) 김복수·강돈구·이장섭·전택수·오만석·박동준 편, 문화의세기 한국의문화정책, 서울 :보고서, 2003, p.27.

3) UNESCO,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y, 1982.9.;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최종보고서, 1986, p.10 재인용.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최종보고서, 1986, p.13

3. 문화지표의 기능

- 문화지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것이 문화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 문화는 본질적으로 질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부 혹은 지자체가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인 자료나 적절한 분석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 유네스코에 의한 제1차 세계문화정책 정부간 회의에서 “문화정책의 수립은 객관적이며 적절한 데이터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문화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만으로는 활동계획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며,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문화적 측면을 얼마만큼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문화지표와 문화통계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캐나다에서는, 국립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문화통계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적절한 문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관한 정부예산, 예술가의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문화활동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새로운 문화정책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단체 및 기구들의 문화계통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지표와 문화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표가 아무리 신뢰성이 높고 유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를 단순한 통계수치로 환원하여 표현하기는 어렵다.
 - 문화활동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복잡적이며, 창의성이나 예술성과 같은 문화의 속성은 다양한 요인들의 인과관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경제, 사회현상보다 수치를 이용하여 나타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 오늘날의 문화는 이를 전파하고 있는 물질적인 수단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문화를 향유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오늘의 문화발전은 문화의 내용을 전파하는 매체의 발전과 수용자들의 문화적 요구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개인의 문화적 향수권의 확대를 문화발전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문화의 양적 확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발전에 대해 그리고 또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인 지수로서 문화지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문화지표 및 문화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을 Throsby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 첫째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계 전체의 특성이나 경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이다.
 - 둘째는,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배후에 숨어있는 유형이나 관계, 원인, 결과와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 셋째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예술가의 사회적 조건향상을 도모하거나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넷째는, 정책적 목적으로 문화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결과 평가를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4. 지역문화지표의 개념

- 지역문화지표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자료이며, 지역문화의 발전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 통계가 일반적으로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배제된 수치상의 표현이라면 지표는 일정한 방향으로 의도된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조작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 추상적인 개념들이 경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개념을 일정한 속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수로 바꾸고 이를 다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이러한 지표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되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지역문화의 발전현황과 변화추이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도구이자 지역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준거가 되기도 한다.
- 지역문화지표는 추상개념인 지역문화의 구축과 발전정도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기본 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 지역문화는 역사적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적·공간적 단위인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물로 지역 간 차별화의 기제로 활용되기도 하고 차이를 통한 상호 소통과 교류의 매개역할을 한다.
 - 또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및 일체감과 주민통합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참여의식, 창의성과 자주성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의 활력소가 된다.
 - 지역문화지표는 이러한 지역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준거로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각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
 - 지역문화지표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속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재인식 하여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문화지표의 관련 개념으로는 문화통계와 문화지수 등이 있으며, 각 개념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초 자료가 된다.
- 지표는 사물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현재의 상태와 변화의 흐름을 판별할

수 있는 통계 및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를 의미한다.

- 사회지수의 한 형태인 문화지수는 ‘문화를 둘러싼 각종 여건과 현실을 기준점과 대비 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표준화된 종합적 수치’를 의미한다.
- 문화통계를 문화지표를 통해 생성된 구체적인 수치 값이라고 한다면, 문화지표는 문화현실의 수리적 측정을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표 2-1> 문화지표의 관련 개념

개념	의미	주안점 및 과제
문화통계	문화지표를 통해서 생성된 구체적인 수치값	문화지표의 측정 수치값 문화지수의 원자료
문화지표	문화현실의 수리적 측정을 위한 척도	문화통계 및 지수 산출의 기초/측정 정도 설정
문화지수	문화현실을 기준점에 대비 비교하려는 표준화된 종합 수치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종합 수치 구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종합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지역문화지표의 기능과 역할

- 지역문화지표는 문화정책분야의 측정, 평가, 설명, 혁신 등의 기능을 가진다.
 - 단순한 수적 표현이나 통계치가 아니라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문화정책수행의 결과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
 - 먼저 측정기능과 평가기능으로 특정부문의 구조, 운영상태, 변화의 과정에 대한 파악 및 기술, 비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해준다.
 - 설명(정보제공)기능으로 특정부문의 구조와 운영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세부 부문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검증된 결과를 제공한다.
 - 혁신기능으로 관련 부문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준다.
- 지역문화지표는 지역의 문화정책 목표에 따라 발전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문

화 발전 측정'의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는 척도로 작용하며, 목표지향적, 정책지향적 측정 도구로 기능한다.
- 문화적 발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는 문화의 발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달리, 정책 목표에 근거하여 현실을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규범적 지표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 지역문화지표는 지역문화현실의 수리적 측정을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지표는 사물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현재의 상태와 변화의 흐름을 판별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를 의미한다.
- 사회지수의 한 형태인 문화지수는 '문화를 둘러싼 각종 여건과 현실을 기준점과 대비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표준화된 종합적 수치를 의미한다.
- 문화통계를 문화지표를 통해 생성된 구체적인 수치 값이라고 한다면, 문화지표는 문화현실의 수리적 측정을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지표란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적 지향과 가치에 비추어 각종 문화현황과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수요의 흐름과 동향 등을 판별하기 위한 항목, 혹은 코드의 체계적인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지역문화지표는 지역의 문화적 상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은 일반적으로 문화시설·문화행사·문화예술인·문화유산·문화산업·문화정보·문화예산·문화행정인력 등의 문화자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있는가와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진다.
- 이 때 문화지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문화 복지의 향상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

○ 지역문화의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개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지표는 지역의 문화적 상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사업단위로 진행되는 예산배분이 아닌 장기적 안목의 지역문화정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문화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요소들을 지수화 할 수 있는 항목의 설정으로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 현재의 지역의 문화적 변화를 인식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에 기여한다.
- 문화지표의 개발과 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정책의 내용과 질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재의 문화적 변화를 인식하는데 활용된다.
 - 특정계획이 도달해야하는 목표를 양적으로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계획으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현재의 지역문화 상황 측정을 통하여 미래의 지역문화 발전과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

제2절 문화기반시설의 의미와 기능

1. 문화기반시설의 개념

- 문화기반시설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삶의 다양성, 다양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문화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총체적 공간으로 정의된다.
- 문화기반시설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보다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 활동의 중요한 표현이고 결과물로서 사회관계 형성과 지역사회의 이해 확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김원태 외, 2001; 이원태, 2004)
- 또한 현재 문화기반시설은 평생학습시설 및 산업시설로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이원태, 2004)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을 공연, 전시, 문화보급 및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은 문화 활동의 창작, 교류, 집적, 전달 등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으로서(라도삼, 2004; 이원태외, 2004), 지역주민과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소를 지칭한다.

2. 문화기반시설의 기능

- 문화기반시설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리고 환경적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김원태 외, 2001; 손경년, 2002; 이원태 외, 2004)
-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적 의식과 문화향유의 형성, 문화격차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의 문화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문화의 발현, 창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지역의 성격과 문화적 특색이 결합하여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형성되는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및 장소이다.

- 문화기반시설은 지역 공동체가 요구하는 문화적 욕구와 기대를 문화공간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 공간활성화의 효과는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자발적인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문화기반시설의 분류

- 법적 체계에 의한 문화기반시설은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일 뿐 장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문화기반시설을 현실적 여건에 맞춰 설치목적, 기능, 시설형태, 운영방식, 시설형태, 시설규모에 따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도삼, 2004; 양정필, 2006)
- 우선 설치목적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은 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 지역 문화 환경 조성 및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문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시설, 문화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위한 시설, 특수 계층의 문화적 이해를 위한 시설, 생활 여가 창출을 위한 시설로 분류된다.
- 기능에 따라서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정보시설, 교육시설, 작업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복합시설(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수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시설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장르복합시설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인 기능복합시설로 나뉘), 전용시설로 분류된다.
-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소유주체에 따라 국립시설, 공립시설, 민간비영리시설, 민간시설로 나뉜다.
- 운영형태에 의하여서는 기획전문시설, 대관전문시설, 전용시설로 나뉜다.
- 시설규모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은 대규모 문화기반시설(거점문화기반시설로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발표 및 전시활동을 통해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중소규모 문화기반시설(대규모 문화기반시설과는 달리 하나의 장르의 발표와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생활권 문화기반시설(생활권 단위로 소규모로 설치된 시설을 지칭하며 대부분 비영리로 공공에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문적인 예술의 발표/전시보다는 문화교육과 전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나뉘어진다.

〈표 2-2〉 시설규모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역할

시설의 기능		시설규모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중소규모 문화기반시설	생활권시설
창조의 공간	창작과 생산 활동, 감상과 교육활동	시설 단위	거점시설	예술시설	생활문화기반시 설
		설치 단위	국가·도시	민간	공공
교류 의 공간	예술적 가치 의 교류와 상 호작용	설립 주체	국가·광역자치 단체	민간기업·재단	기초지자체·지 역개발사업자
집적 의 공간	흡입과 발산 의 창구	시설 입지	거점지역(상징지 역) 도심이나 밀집지역	밀집지역, 도심	생활권(기초지자 체별)
전달 의 공간	교육과 커뮤니 케이션, 전 수활동	주요 역할	주요장르의 발표/전시 세계와의 교류	예술품의 발표/전시, 소비자와의 교류	문화교육 및 체험 시민과의 교류
		주요 기능	국가적인 문화력 상징	예술의 시장적 가치 창출	시민문화권 향상

4. 문화기반시설의 법적체계 및 기준

- 문화기반시설의 법적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총 5개로 분류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개정 2012.8.13] [[시행일 2012.8.18.]]

문화기반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관시설
 -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그 밖의 문화기반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기반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때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의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다.
- 문화의집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2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 생활권내에 조성된 지역민 대상 문화교육·체험을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구분	문화의 집	문예회관	문화원
목적	- 지역생활권내에 조성된 지역민 대상 문화 교육·체험을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 공연·전시·행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문화 공간	-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지역문화행사를 개발·보급하는 법인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2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기능	- 청소년·노인·주부 등 계층별 문화교육 체험공간 - 꽃꽂이·생활도예·서예·가요·컴퓨터강좌·사진강좌·한문교실·창작동요·종이접기·풍물교실 등 소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	- 연극, 무용, 오페라 등 공연행사 및 전시회 개최 - 지역행사, 학술행사 등 장소활용	- 지역향토문화 연구 및 자료 수집·보존 -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강좌 실시
시설 내용	- 인터넷·비디오·CD부스, 문화창작공간, 문화강좌공간, 문화체험공간(서예·도자기) 등 100평 내외	- 공연장(300-1,000석 이상), 전시장(200-500평 규모)	- 향토 자료실, 교육공간(100평-200평)
관리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일부 민간위탁 운영	- 지방자치단체 - 일부 민간위탁 운영	- 사단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제3절 문화격차론

1. 일반론

- 문화격차란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향수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다시 말하여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수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 문화격차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 첫째,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도가 개개인의 구매력과 여가시간에 기초하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성간, 세대간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 문화교육의 시장화 경향에 따라 부모의 사적 투자에 의한 문화자본의 세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셋째, 문화예술분야의 생산과 소비 집중으로 말미암아 도시내 자치구간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넷째, 문화자본을 이미 획득한 특정계층이 표현수단과 상징세계를 독점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른 계층은 표현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문화소외계층은 이렇듯 문화격차 현상으로 인해 초래된다.
 - 문화소외계층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낮은 학력, 장애, 취약지역 거주, 소수민족 출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주류문화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제되거나 독자적인 자신의 문화를 생산하고 발표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 나아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거나 불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있는 사람

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문화격차의 요인

- 문화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등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망라하여 지적할 수 있다.

1) 접근성

- 문화격차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접근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지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지리적 접근성

- 우선,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문화행사장까지 찾아가기 힘든 경우에 발생한다.
 -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함으로써 문화격차를 낳는다는 지역간 문화격차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유력한 변수이다.
 - 국가 차원에서는 주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설명하며, 지역내 차원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구별 문화기반시설 격차를 설명할 때 많이 언급된다.

(2) 물리적 접근성

- 신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신체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문화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3) 경제적 접근성

- 경제적 접근성 문제는 가격장벽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감상하는 것 등은 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화비는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저렴하더라도 생계비와 상쇄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2) 문화해득력(Cultural Literacy)

- 문화해득력이란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당대의 문화예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능동적 문화활동의 전제조건인 문화해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있다.
- 소외계층의 문화해득력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교육 분야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문화 성찰성(Cultural Reflexivity)

- 문화 성찰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 소수민족의 문화, 빈곤층의 문화, 이민노동자의 문화, 결혼이민자의 문화, 노인의 문화 등 주류문화에 의해 사실상 타자로 취급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와 존재방식을 포용하고 이들의 표현능력 제고와 표현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문화격차 해소의 원리

1) 문화적 권리 신장

- 문화격차를 해소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문화적 권리의 개념이다.
 - 문화적 권리는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적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로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 문화적 권리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보장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
-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문화적 권리 신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 이를 위한 조치로는 문화관련 예산배정, 민간문예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소수집단의 정체성 및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 문화적 공공성 강화

- 문화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삶의 터전으로 기능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따라서 문화정책은 소수의 능력 있는 개인들만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 문화에 공적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문화에 대한 대중의 참여, 향유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문화복지의 실현

- 문화복지란 시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미에서 생산적 복지이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범죄 등 각종 사회병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복지이기도 하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예술과 사회정책을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5. 문화격차의 요인 및 대안에 대한 개념틀

- 이상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 범주의 요인과 대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우선, 문화격차의 요인을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관련된 직접적인 대처와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표 2-3〉 문화격차의 요인 및 대안

요인		발생원인	대안의 예
객관적 요인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으로 인해 문화비 지출 여유가 없음 · 생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 소득공제제도 · 관람·입장료 할인 제도 · 문화바우처 활성화
	지리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거리 · 집적 효과 ·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문화시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인프라 우선지원 ·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균형발전
	신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회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 · 적절한 문화콘텐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터제 등 적극적 조치 · 표현 기회 확대
주관적 요인	문화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문화체험 부족 · 문화해득력 부족 · 관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강화
	심리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부담 · 소외감 · 문화적 소비에 대한 거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제4절 문화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1. 국외 연구사례 검토

- 문화격차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하나는 거시차원으로 주로 문화격차 현상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는 경향이다.
 - 두 번째는 미시차원으로 문화격차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이다.

1) 거시차원의 연구

- 거시차원의 연구들은 문화격차의 시대적 흐름을 주로 분석한 사례들이다.
 -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불평등성에 주목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뉴미디어나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이 있다(Bawden, 2002:24-26; UCLA Center for Communications Policy Internet Report 2001).
- 사회자본의 쇠퇴, 가족구조의 변화, 문화예술기술의 변화 등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거시적 조망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감소현상을 다루는 연구(DiMaggio and Mukhtar, 2004)가 또 한 방향에서 자리잡고 있다.
 - 이러한 연구들은 시대별 문화행태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활동 참여나 격차의 시대적 특성을 분석한다.
 -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연구보고서도 이러한 부류에 해당된다.
- 또 하나의 경향은 거시적 문화흐름에 대한 연구사례들이 있다.

- DiMaggio(1987)의 문화분류 연구는 문화상품서비스의 생산분배 구조와 문화 취향을 중심으로 거시차원의 문화분류체계(artistic classification systems)를 보여주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학술적 연구흐름과 달리 그동안 국내 연구는 문화격차 혹은 문화향수 실태 보고서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으며(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2003; 2006) 상기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 여전히 문화격차의 시대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학술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2) 미시차원의 연구

- 미시차원에서는 문화격차에 대한 요인으로 소득과 교육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과 나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지역과 같은 지리변수 등을 활용하여 변수별 문화격차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경제적 변인으로는 가구소득(1997년 미국 NEA 조사자료)을 사용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 지리적 요인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의 분포와 교통시설(Bawden, 2002)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 그 밖의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 성별, 나이, 신체장애나 인종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이나 부모의 습관, 교사의 교육변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국내에서는 손진은의 연구(2005)가 문화리터러시로서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학과 문화의 결합·전이 양상에 주목하고 대중가요, 시, 문학, 영화 등 문화와 문학텍스트의 통합수단으로서의 문학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2. 국내 연구사례 검토

1) 문화격차의 일반적 원인·실태 관련 연구

- 문화격차의 개념을 제시한 박용치(2003)는 그의 연구에서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문화유산,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원, 문화의 거리를 포함하는 문화인프라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공연회수, 전시회수, 출판사, 인쇄소, 지역문화축제를 포함한 문화소프트웨어의 개수, 그리고 문화예산 등을 ‘문화지표’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문화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하지만 이 연구에는 그가 제시한 문화격차의 개념과 불일치하거나 문화격차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먼저 그는 그의 논문 전반부에서 ‘문화’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서술하며, 문화가 오페라나 고전음악, 무용 등 전통 또는 고급예술에서부터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실질적인 문화격차 분석에 있어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 전통적인 예술문화 영역에 해당되는 문화기반시설들만을 문화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그는 이러한 문화기반시설들이 인구 10만 명 당 어떤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문화격차의 유형중 하나라고 밝혔던 ‘문화접근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 그런데 그는 앞서, 문화접근도에 대해 ‘시민이 문화기반시설 등 문화와 맺고 있는 연결’이라 설명하며, 문화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문화접근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소득 등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그가 문화접근도에 따른 문화격차를 살펴보고자 하였을 때, 한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문화기반시설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료’등의 경제적인 장벽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용료 등이 문화기반시설의 종류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개수와 이것이 인구 10만 명 당 몇 개의 비율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쳐 경제적 장애에 따른 문화접근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한계는 그가 문화소프트웨어의 수를 빌어 살펴본 ‘문화이용도’에 따른 문화격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2) 문화교육프로그램의 격차 현상에 관한 연구

○ 문화교육프로그램과 문화격차를 연관 지어 살펴본 선행연구들로 박낙종 외 (2008)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이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자본의 형성에 공공문화기반시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이들의 연구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인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문화자본 형성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소득이 많을수록 재방문 횟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자본의 형성으로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 차이에 의한 문화자본 형성 기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 이 연구는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기반시설 내부에서 행해지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이 향후 문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문화자본의 형성 기회가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차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그러나 여전히 문화 활동을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음악회 방문 등으로 정

의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공공문화기반시설 등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면서, 문화의 학습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황연주,2005;박인배,2007;오승현,2007)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이 같은 연구방향은 문화의 향수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에 노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확대 방안에 대해 연구한 정철현과 황소하(2010)는,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미성년기 예술교육보다는 성년기 예술교육이 더 유의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부모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미성년기의 사교육보다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년기의 예술교육이 문화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 이들의 연구는 성년기 예술교육이 문화향수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전술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내용이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 즉 문화예술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다 폭넓은 의미의 문화를 다루는 문화강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김명혜(2002),유진선(2008),김현남(2009)의 연구가 있다.
 - 이 중 김명혜(2002)와 유진선(2008)은 백화점 문화센터의 문화강좌와 수강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백화점 문화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강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백화점 문화강좌 수강이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자아정체성과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 김현남(2009)은 백화점 문화센터와 더불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주민센터 등에 개설되어 있는 생활무용 강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 이들의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벗어나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사회교육시설,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복지기관에서 운영되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강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다른 선행연구들과 구분된다.

- 그러나 이 연구들은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한 종류의 문화기관에 초점을 맞추거나, 생활무용 강좌와 같은 특정 종류의 문화강좌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여러 종류의 문화기반시설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강좌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3. 문화격차 현상에 대한 국내 연구 실태 및 시사점

- 문화격차 및 문화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 첫째, 문화가 갖는 폭넓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문화격차의 분석에 있어서는 문화를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에 관한 것으로 국한시켜 살펴보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둘째, 문화향수에 있어 성년기 문화교육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셋째, 공공문화기반시설 등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다양한 기관들에서 행해지는 문화강좌까지로 확대하여 살펴본 연구들의 경우에도 특정 종류의 문화강좌기관이나 문화강좌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간 ‘격차’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 따라서 어떤 대상들 간의 ‘격차’는 단순히 하나의 대상물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을 비교할 때만이 파악될 수 있고, 따라서 문화강좌에 따른 지역 간 문화격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문화강좌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화예술과 같은 협의의 문화개념 뿐 아니라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광

의의 문화 개념까지를 다루고 있는 성인 대상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인 문화강좌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통해 대전 지역의 자치구 간 문화격차 실태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최근 문화격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원인파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문화격차 현황을 다루는 보고서는 다수 출간되고 있지만 실제 학계에서 이와 관련된 엄밀한 분석은 미흡하다.(라도삼, 2002; 조현성,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예를 들면, 김경옥의 연구(2003)는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화접근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문화격차에 대한 실증연구가 아닌 이론적 논의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 국내에서 문화격차에 관한 실증연구는 주로 연구원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문화향수실태조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등이 있다.(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2003;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그 밖에 도농간 교육·문화격차를 다룬 논문(최민호·정지웅·김성수, 1990)이 있고, 도시지역간 경제·문화·사회복지 측면의 지역격차를 다룬 논문(최윤정·이금숙, 2005)이 있다.
 - 그러나 이들 논문은 전국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문화격차를 분석한 것은 아니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윤용중(1998)의 연구는 전국 차원의 문화격차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통계청 가계연보를 이용하여 거시차원에서 소득계층간 문화예술 소비 분포를 Gini계수와 십분위법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시가계연보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문화예술 항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대전의 문화격차 현상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며, 실증 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 따라서 대전시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 향수실태조사에 근거해 문화격차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문화정책과 문화기반 지표 분석

제1절 대전시 문화정책 추진 실태

제2절 대전시 문화기반시설 분포 특성

제 3 장 문화정책과 문화기반 지표 분석

제1절 대전시 문화정책 추진 실태

1. 문화행정과 문화예산

- 대전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국의 문화예술과가 있고, 문화예술과안에 문화정책, 예술진흥, 공연예술, 문화기반시설에서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대전시의 문화행정 조직은 문화예술, 체육지원, 관광산업, 종무문화재로 비교적 모든 업무를 포괄하도록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문화산업 등 다른 업무와의 긴밀한 연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업무 조정이 다소 취약한 감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각 구에서는 문화관련부서의 문화예술계가 조직되어 구별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국 조직도

- 대전광역시의 문화담당은 문화정책에 대한 기획 및 분석, 평가 등 전반적인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예술담당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예술제 개최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담당은 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 2015년 문화관련 예산은 1480여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약 80억원이 줄어들었다.
 - 이러한 감소의 주요 요인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2014년에 이루어지면서, 이에 투입되었던 비용이 2015년에 주요 감축액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이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이 증가하였다.

<표 3-1> 대전시 문화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2014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48,174	156,161	△7,987	△5.1
문화예술과	35,703	50,512	△14,809	△29.3
체육지원과	65,923	63,337	2,586	4.1
문화재증무과	4,818	4,486	332	7.4
관광진흥과	9,865	7,793	2,072	26.6
한밭도서관	7,171	8,621	△1,450	△16.8
시립미술관	4,641	5,072	△431	△8.49
대전예술의전당	10,479	9,971	508	5.0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7,243	4,542	2,701	59.5
대전시립박물관	2,331	1,827	504	27.5

2. 관련법 및 조례

1) 관련법 검토

(1) 공연법 (개정 : 2002. 1. 26.)

-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시행을 주요 임무로 부여하고 있다.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공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도서관법 (개정 : 2009. 3. 25.)

-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해야 하며, 도서관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39조), 도서관 및 문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기반시설과 협력해야 한다(제7조)고 정의하고 있다.
-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립 문고를 설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9조)하고 있다.
-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체제로서 도서관 협력망을 구성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제4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실시해야 하며,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46조).
- 2006년 10월 4일에는 이 법의 성격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 등 사회·문화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도서관환경의 변화수용 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다.
- 한편 독서진흥관련 부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 2009년 3월 25일에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확대하였고,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온라인 자료 제외)에 대하여 디지털파일 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 2002. 12. 18.)

-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다.
- 지방문화원은 명칭에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지방문화원의 정치나 종교활동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2012. 2. 17.)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시·도지사는 문화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등 특정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끔 명시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을 위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한국문학번역원(2010년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이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2009. 6. 6.)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유휴공간을 대여하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조체제로서 협력망을 구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문화재보호법 (개정 : 2010. 2. 4.)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은 지원될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3-2> 문화분야 법률 제정 · 개정 현황(2009)

제 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2009. 6. 9)
개 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2.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2009. 2. 6), (2009. 5. 2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3. 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2009. 3. 5)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2009. 3.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2009. 3. 5) 도서관법 개정 (2009. 3. 25) 저작권법 개정 (2009. 3. 25), (2009. 4.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2009. 3. 18) 국어기본법 개정 (2009. 3. 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2009. 3.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5. 8), (2009. 5. 21) 고도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09. 5. 8)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6. 9)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7. 31)
* 자료 : 문화정책백서(2009)	

2) 문화예술관련 조례

〈표 3-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련 조례*

문화예술관련조례	제정일시	목적	관련법령
대전광역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	1962.10.01	*상호공동체의식 증진 및 향토고유의 문화예술 발양	
대전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1979.09.13	*시민회관 대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사항 규정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1981.11.30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측량법 측량법시행령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규칙	1983.12.27	*시립연정국악연구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규정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	1981.07.10	*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1981.12.31	*시민의정서함향및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시립예술단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광역시향토자료관설치및운영조례	1990.06.18	*대전광역시 고증자료, 민속유품 자료 수집·보관·전시, 및 향토사 조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1990.05.22	*대전광역시사편찬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1992.01.11	*지역사회 교육향상 및 문화발진, 도서 자료수집·보존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1992.01.11	*한밭도서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1998.03.10		박물관미술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2000.03.10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존, 활용을 통한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1989.01.01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에 관한 필요사항규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2000.03.21	*시민헌장발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2001.12.31	*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위임사항 및 시행사항을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2002.02.01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2003.09.19	*대전 문화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2003.09.26	*대전 문화 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관한사항규정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04.05.14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규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1996.10.24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시행필요사항 규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체육, 청소년 분야는 제외하였음

- 기관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공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두어 문화재보호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문화예술의전당 공연은 순수예술인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순수예술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대중예술과 접목된 전위적 또는 실험적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최근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정책에서 탈장르 및 실험적, 대안적 예술 중시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문화정책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예술장르의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시계획의 수립에서 문화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범위에 문화관련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선행계획 검토

1)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2012)

- 대전광역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오는 2017년까지 5개년 간 기 구축된 문화예술자원의 활성화·고품격화 및 신규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5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금년부터 중기는 2017년까지, 장기는 2021년까지의 계획 추진 기간 동안 ‘품격높은 문화예술’을 위하여 대전학 및 대전문화연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계획, 과학문화융합축제 발굴 지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운영 등 16개 사업과 ‘전통 깊은 문화예술’을 위해 대전시립박물관 조성·운영, 대전연합교양대학 설립·운영 등 10개 사업 추진을 제시

하고 있다.

- ‘창조적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과학문화융합창작센터(가칭) 운영, 소규모 공연장(블랙박스) 지원, 공연시설 특성화 운영, 문화예술창작 복합단지(가칭) 조성 등 16개 사업을 시행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위해 공공 도서관 건립,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미래 지향 문화예술’을 위하여 대전문화예술 포털 DB 구축 등 4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시는 중부권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는데 투자되는 재원의 총 규모를 2012년 - 2021년까지 총7,371억원(국비 4,533억원, 지방비 2,061억원, 민간투자 946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와 민간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함께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조달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2) 대전비전2030 (2015)

-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과 더불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대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도시기반 등 각 분야별 2030년 대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분야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및 향유권 증대, 관망하는 향유보다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관련 활동의 확산, 첨단 콘텐츠 문화예술 산업의 급속한 성장, 세종시의 조성과 더불어 중부권 문화예술향유 인구의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또한, 노동시간의 감소와 더불어 늘어나는 자유시간과 더불어 시민이 참여적 여가문화 체험욕구 증대, 휴양, 건강 등 웰빙 추구형 생활양식 확산, 국제와

추세에 따른 다문화 사회의 발전, 도시생활 자원의 가치 증대 등에 따른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점점 더 강화되는 창조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학령기 인구의 감소 및 증대하는 교육의 중요성, 공동체의 자원에 기초한 학습,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교육의 기능, 지역과 계층간 교육불평등 문제의 해소 등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대전비전 2030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창조성 제고, 수동적 향유에서 능동적 참여와 체험 활동 강화, 온라인의 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가치가 높아지는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관심, 도시의 공동체적 학습사회를 구축하여 미래지향의 창의적 인재의 확산을 도시발전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절 대전시 문화기반시설 분포 특성

1. 대전광역시 문화기반시설의 일반 현황

1) 문화기반시설 현황

- 대전광역시가 2015년 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시설 67개, 전시실 59개, 도서관 238개, 문화보급전수시설 12개로 모두 376개이다.
- 이중 공공시설은 126개소, 민간시설은 250개소이다.

〈표 3-4〉 대전시 문화예술 시설 현황

구분	합계	공 연 시 설				전 시 실				도 서 시 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계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공연장	계	박물관	미술관	화랑	계	도서관	작은도서관	계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문학관	예술창작센터
합계	376	67	53	10	4	59	20	5	34	238	23	215	12	5	1	4	1	1
공공	126	32	28	0	4	23	12	2	9	59	23	36	12	5	1	4	1	1
민간	250	35	25	10	0	36	8	3	25	179	0	179	0	0	0	0	0	0

- 대전광역시의 공연시설은 공연장 53개소, 영화상영관 10개소, 야외공연장 4개소 등 총 67개소가 있다.

『공연법』 제2조 4호 규정에 의한 공연장은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종합공연장’,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은 ‘일반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소공연장으로 명시하여 분류함

- 공연시설 중 공연장은 1,000석 이상의 대형 종합공연장이 7개소, 300석 이

상 1,000석 미만의 일반공연장이 15개소, 300석 미만의 작은 규모의 공연시설이 31개소가 있다. 최근의 공연시설은 소공연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소극장 등 생활권 문화가 확산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5〉 공연시설 현황 (2015. 1. 현재)

종합공연장	공연장		영화영상관	야외음악당	합계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7	15	31	10	4	67

자료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은 모두 10개소이다.
- 운영되는 상영관은 모두 67개이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객석수는 총 11,528석이다. 이는 대전광역시민 130명당 1객석 정도에 해당한다.
- 문화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야외에서 대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대전광역시가 보유한 공연시설 중 야외음악당은 4개소가 있으며,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야외공연 시설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다만, 야외공연장은 중구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으로, 향후 증설시 유성구, 동구 지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6〉 야외 공연시설 현황 (2015. 1. 현재)

시설명	주소	주용도	수용인원
서대전 야외공연장	중구 보문산로길 94번길 103	야외공연	1,800
숲속공연장	중구 보문산공원로 426-83	야외공연	1,200
우리들공원 공연장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야외공연	1,000
대전예술의전당(원형극장)	서구 둔산대로 135	야외공연	1,000

자료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시시설 중 박물관은 국립2개소, 공·사립박물관 11개소 대학박물관 7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다.

〈표 3-7〉 전시시설 현황 (2015. 1. 현재)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합계
국립	사립	대학	국립	국립	사립			
11		7	2	2	3	40	2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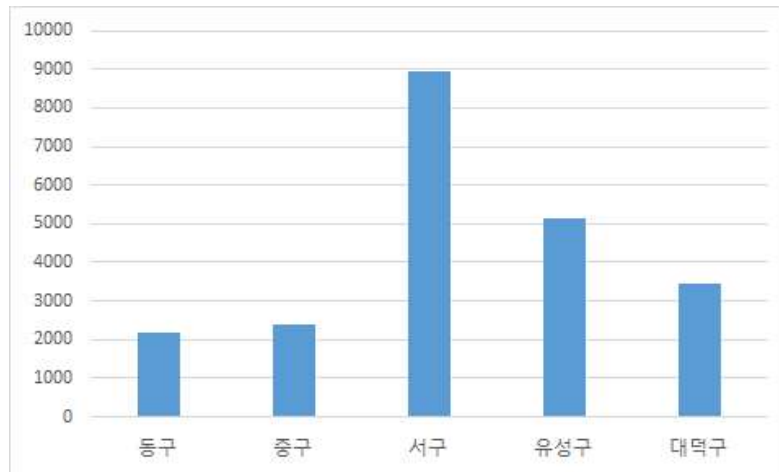
자료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미술공간은 공공미술관 2곳과 사립 미술관 3곳이 있으며, 작은 규모의 화랑이 34개소가 있다.
-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모두 23개소의 공공 도서관이 있다. 이들 도서관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지식수준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은 물론 도서관에서 펼치는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대전광역시 관내 공공도서관은 구별로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생활권별로 더 많은 도서관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2. 구별 분포 현황

1) 공연장

〈그림 3-2〉 공연장의 객석수 구별 분포



○ 대전광역시의 공연시설 중 공연장은 총 53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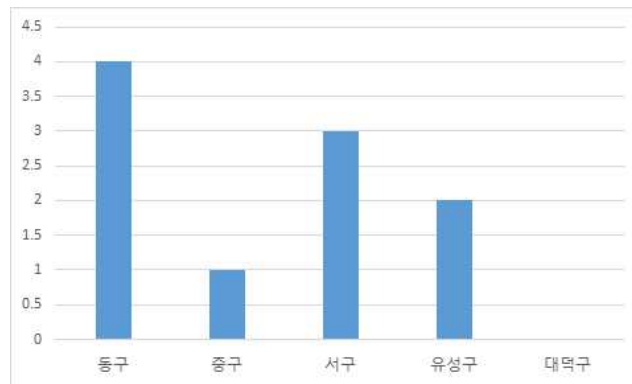
- 이를 행정권역별로 살펴보면, 동구에 6개소, 중구에 12개소, 서구에 18개소, 유성구에 7개소, 대덕구에 10개소가 분포되어있다.
- 공연장 규모에 따라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에는 다목적공연장 1개, 공연장 5개가 있으며, 중구에는 다목적공연장 1개와 공연장 11개가 있다.
- 그리고 서구에는 종합공연장 3개, 공연장 15개 등 모두 18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유성구에는 종합공연장 3개, 공연장 4개가 소재하고 있고, 대덕구에는 종합공연장 1개, 공연장 9개 등 10개의 크고 작은 공연시설을 가지고 있다.

○ 각 구별 공연장 객석수의 분포현황을 보면, 서구지역 8,938석, 유성구 5,143석, 대덕구 3,435석, 중구 2,374석, 동구 2,192석의 순으로 대전 전체 객석수는 22,082석이다.

2) 영화상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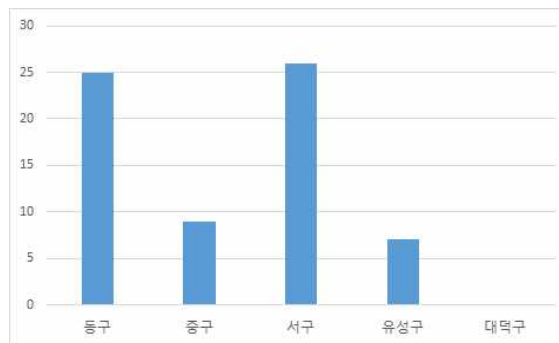
- 종합영화상영관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동구 4개소, 중구 1개소, 서구3개소, 유성구 2개소, 대덕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영화관 구별 분포



- 영화관의 상영관 수를 행정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25개, 중구 9개, 서구 26개, 유성구 7개, 대덕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상대적으로 서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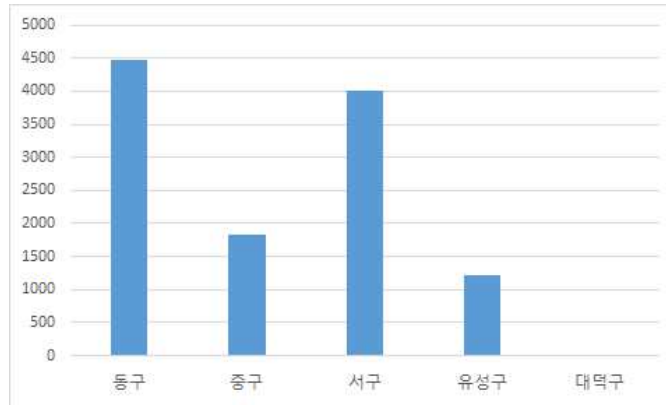
〈그림 3-4〉 영화관 스크린수 분포



- 영화상영관의 수는 상영관의 개수보다 객석수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행정구역별 분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구가 4,465석, 중구 1,830석,

서구 4,015석, 유성구 1,218석으로 영화상영관 객석의 수는 동구와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영화상영관 객석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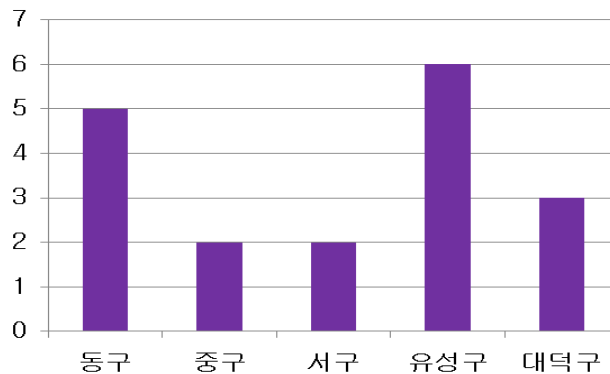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3) 박물관

-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역사박물관 등 이용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박물관이 있다.
- 박물관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동구에 4개소, 중구에 3개소, 서구에 3개소, 유성구에 7개소, 대덕구에 3개소 등 총 20개 박물관이 각 구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3-6〉 박물관 구별분포



4) 문화원

- 대전광역시에서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원은 현재 각 구마다 1개소씩 소재함. 1953년 설립된 대전시 지방문화원이 중구문화원으로 대전지역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구에 문화원이 설립되어 지역의 문예진흥을 주도해 가고 있다.

〈표 3-8〉 대전광역시 문화원 시설 현황 (2015. 1. 현재)

시설명	주소	건물면적 (㎡)	직원수	설립일자	주요사업프로그램
동구문화원	동구 백룡로 20(자양동)	546	2	1997. 1.24	문예백일장, 휘호대회, 시화전, 문학지발간
중구문화원	중구 대흥로 109(대흥동)	2,931.21	3	1994.12. 8	우정의 만남전, 사생대회, 토요일예술축제, 뿌리백일장
서구문화원	서구 계룡로 553번길 38(탄방동)	2,732	8	1995. 2.14	서구문화총서, 문화학교작품 전시, 모화가죽유적답사
유성문화원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2,036	5	1994. 5. 3	월간모화유성, 서포문화제, 유성온천단오제, 농연리 밤
대덕문화원	대덕구 대정로 1350	3,453	1	2000.12.27	대덕백일장, 대덕미술작가전, 호연제, 문화예술축제

자료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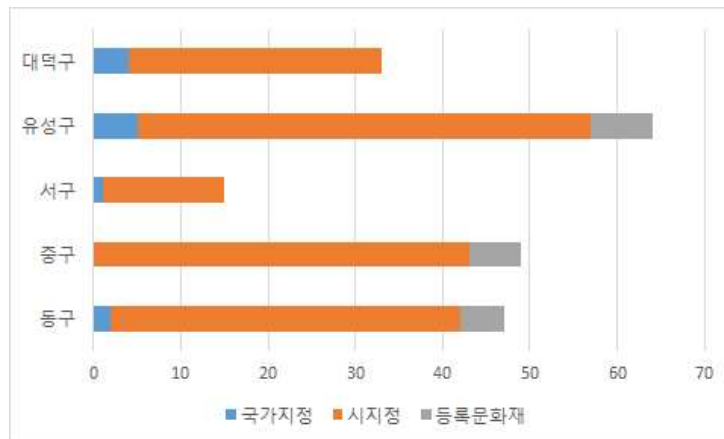
5) 국악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1981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개원하여 현재까지 민속 고유음악의 보존·연구육성 및 교육,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및 국악강습,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열람 및 악기전시 등의 활동을 펼쳤다.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악연주이외에 강습과 교육기능을 함께 갖춘 국악원으로 매월 시민을 위한 국악강습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연정 임윤수 선생의 국악도서 등 14,000여권의 국악도서와 1,000여점의 음반을 소장한 도서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고 있어 명실 공히 한 국음악의 요람으로 자리하고 있다.

7) 문화재

- 대전광역시는 2015년 1월 현재 12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178건의 ‘시지정문화재’, 18건의 등록문화재를 포함해 총 208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지방문화재 자원이 다른 시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며, 국가문화재 또한 최근 지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구별 분포는 유성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구는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문화재 분포



제 4 장

대전시 문화격차 조사 결과분석

제1절 문화기반시설의 격차 분석

제2절 대전시민 문화격차 인식 조사 결과

제3절 해외 문화격차 해소 정책 사례

제 4 장 대전시 문화격차 조사 결과분석

제1절 문화기반시설의 격차 분석

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공간 특징

- 2015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기준, 전국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중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은 총 2,519 개소가 있다.
- 경기도가 481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가 342개소로 그 다음으로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 분	지 역	총 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 1	서울	342	1	132	122	38	16	25	8
	부산	79	-	32	16	5	11	14	1
	대구	66	-	30	13	4	11	8	-
	인천	88	-	42	25	4	8	8	1
	광주	54	-	20	10	7	8	5	4
	대전	54	-	23	15	5	3	5	3
	울산	40	-	17	9		5	5	4
	세종	10	-	3	5		1	1	-
	경기	481	-	217	143	44	35	31	11
	강원	198	-	50	91	10	19	18	10
	충북	126	-	41	44	8	13	12	8
	충남	149	-	57	44	8	17	16	7
	전북	148	-	55	40	11	17	14	11
	전남	179	-	63	46	22	19	22	7
	경북	193	-	64	64	9	26	23	7
	경남	187	-	63	60	8	20	20	16
	제주	125	-	21	62	19	3	2	18
	총 계	2,519	1	930	809	202	232	229	116
지역 2	수도권	911	1	391	290	86	59	64	20
	지방	1,608	-	539	519	116	173	165	96
	총 계	2,519	1	930	809	202	232	229	1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5. 1. 1 기준)

- 대전은 54개 시설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시설 중 도서관이 2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이 15개소이다.

2. 대전광역시 문화기반시설의 일반 현황

1) 문화기반시설 현황

- 2015년 1월 1일 기준, 대전광역시의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23개관, 박물관 및 미술관 20개관, 문예회관 3개관, 지방문화원 5개, 문화의집 3개소 등 총 54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표 4-2> 대전광역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인구수 (2014.12.31)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 예 회 관	지 방 문 화 원	문 화 의 집
		계	지 자 체	교 육 청	사 립	계	국 공 립	사 립	대 학	계	국 공 립	사 립	대 학			
대전시	1,521,389	23	21	2		15	4	4	7	5	2	3		3	5	3
동 구	245,456	8	8			4	1	1	2						1	
중 구	260,472	3	1	2		1	1								1	
서 구	494,432	4	4			1		1		3	2	1		2	1	
유성구	319,576	5	5			6	2	2	2	2		2			1	
대덕구	201,453	3	3			2			2					1	1	3

자료: 인구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2015년)

문화기반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5. 1. 1 기준)

- 대전광역시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54개소이며 지역 간 규모를 시설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성구가 14개소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동구 13개소, 서구 12개소, 대덕구 10개소, 중구 5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반시설의 절대적인 수치만을 기준으로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유성구에 비하여 중구의 경우 1/2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간 문화기반시설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3〉 2013~2014 주민등록인구(대전) 및 자치구 면적

구 분	2013년	2014년	면적(k㎡) (2015.7.31)
전국	50,558,951	50,734,284	-
대전광역시	1,517,298	1,521,389	540.1
동구	248,512	245,456	136.6
중구	261,832	260,472	62.1
서구	494,509	494,432	95.5
유성구	309,002	319,576	177.2
대덕구	203,443	201,453	68.7

- 대전시의 문화기반시설 적정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지계수를 활용한 방법으로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도록 한다.
- 이 방법은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시설별 현황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대전시 문화기반시설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4-4〉 시설별 분포의 입지계수 비교(시도별)

시·도	인구수 (2014.12.31.)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전체
서울	9,970,992	0.72	0.81	0.35	0.56	0.35	0.69
부산	3,485,394	0.50	0.30	0.69	0.89	0.13	0.46
대구	2,477,822	0.66	0.34	0.97	0.72	0.00	0.54
인천	2,863,670	0.80	0.51	0.61	0.62	0.15	0.62
광주	1,465,396	0.74	0.58	1.19	0.76	1.19	0.74
대전	1,521,389	0.82	0.66	0.43	0.73	0.86	0.71
울산	1,115,816	0.80	0.39	0.95	0.96	1.51	0.70
세종	138,270	1.18	1.81	1.58	1.60	0.00	1.46
경기	12,196,188	0.97	0.77	0.63	0.56	0.39	0.79
강원	1,529,766	1.78	3.31	2.72	2.61	2.86	2.61
충북	1,565,580	1.43	1.67	1.82	1.70	2.23	1.62
충남	2,041,139	1.52	1.28	1.82	1.74	1.50	1.47
전북	1,860,008	1.61	1.38	2.00	1.67	2.59	1.60
전남	1,893,159	1.82	1.80	2.19	2.57	1.62	1.90
경북	2,682,403	1.30	1.37	2.12	1.90	1.14	1.45
경남	3,321,034	1.03	1.03	1.32	1.33	2.11	1.13
제주	596,127	1.92	6.82	1.10	0.74	13.21	4.22
평 균		1.18	1.46	1.32	1.27	1.87	1.34

자료: 인구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2015년)

문화기반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5.1.1. 기준)

- 입지계수는 대전시의 시설별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전국인구 대비 대전시의 인구 비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입지계수 = ((대전시 시설수 ÷ 전국시설수) ÷ (대전시 인구 ÷ 전국인구))
- 입지계수가 1일 때는 대전광역시 문화기반시설의 규모(시설수)가 전국인구 대

비 대전광역시 인구 비중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국 인구규모와 시설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작을 때는 인구규모에 비해 시설의 규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클 때는 대전광역시가 인구규모에 비해 시설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입지계수에 의해 대전시 문화기반시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관 0.82, 박물관·미술관 0.66, 문예회관 0.43, 지방문화원 0.73, 문화의집 0.86 등으로 전체는 0.71로 계측되었다.
 - 다른 시도의 인구규모와 비교할 때 시설수는 광역시 중에서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광역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음은 문화기반시설의 분포상태를 자치구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시설수 기준으로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변이계수를 통하여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여기서 입지계수는 대전시 인구 및 시설대비로 계측하였다. (입지계수 = ((자치구시설수 ÷ 대전시설수) ÷ (자치구 인구 ÷ 대전 인구))
 - 우선 시설별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대전시 모든 문화기반시설의 평균 입지계수가 1에 수렴하거나 1 이상으로 나타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별 전체 시설의 입지계수를 보면 동구가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덕구(1.40), 유성구(1.23) 순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인구규모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구(0.54), 서구(0.68)는 낮은 입지계수를 나타냄으로서, 인구규모에 비하여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 입지계수의 표준편차를 입지계수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시설유형별 변이계수는 문화의 집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

예회관이 1.38로 나타나 이들 두 시설의 자치구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0.58, 박물관·미술관이 0.62, 지방문화원 0.30으로 이들 문화기반시설들은 인구 분포와 비교하여 균형된 시설 분포 상태를 보이고 있다.

- 시설 전체로 보면 평균 입지계수가 1.07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교적 많은 수의 문화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변이계수가 0.40으로 높지 않아서 대전시의 문화기반시설이 인구분포상태와 비교할 때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정도가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대전시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 입지계수(시설수 기준, 2015년)

자치구	인구수 (2014.12.31.)	공공도 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 관	지방문 화원	문화 의집	전체
동구	245,456	2.16	1.24	0.00	1.24	0.00	1.49
중구	260,472	0.76	0.29	0.00	1.17	0.00	0.54
서구	494,432	0.54	0.77	2.05	0.62	0.00	0.68
유성구	319,576	1.03	1.90	0.00	0.95	0.00	1.23
대덕구	201,453	0.99	0.76	2.52	1.51	7.55	1.40
평균(A)		1.09	0.99	0.91	1.09	1.51	1.07
표준편차(B)		0.63	0.61	1.26	0.33	3.38	0.43
변이계수(B/A)		0.58	0.62	1.38	0.30	2.24	0.40

3.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 원단위 분석

- 다음은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우선, 대전시 각 지역의 도서관 시설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나누어 원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대상이 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뿐만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청,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전체를 망라하였다.
 - 대전시 자치구별 도서관의 원단위 분석 결과, 지역인구 1인당 도서관수는 동구(40개소 ÷ 245,456)가 0.0002관, 중구(54개소 ÷ 260,472) 0.0002관, 서구(41개소 ÷ 494,432) 0.0001관, 유성구(66개소 ÷ 319,576) 0.0002관, 대덕구(37 ÷ 201,453) 0.0002관으로 자치구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서구의 경우만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좀더 구체적으로 1관당 인구수는 유성구(319,576명 ÷ 66개소)가 4,842명, 동구 6,136명, 중구 4,824명, 서구 12,059명, 대덕구 5,445명으로 서구가 중구에 비하여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도서관 수가 인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설치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4-6〉 대전시 도서관 1관당 인구수

지 역	도서관수(A)	인구수(B)	1관당 지역인구(B/A)
동구	40	245,456	6,136
중구	54	260,472	4,824
서구	41	494,432	12,059
유성구	66	319,576	4,842
대덕구	37	201,453	5,445
대전시 전체	238	1,521,389	6,392

- 중구의 경우 도서관의 연면적이 가장 넓고, 좌석 수 및 도서자료의 수가 많아 지역인구 1인당 도서자료, 좌석 수 및 연면적이 가장 높았다.

〈표 4-7〉 대전시 도서관 원단위 분석

구 분		도서관수	부지(㎡)	연면적(㎡)	좌석수(석)	도서자료
동구	현황	40	26,387	10,506	1,413	209,046
	인구 1인당	0.00003	0.10501	0.04181	0.00562	0.83191
	면적당	0.05857	193.16984	76.91069	10.34407	1,530.35139
중구	현황	54	29,959	37,561	5,226	829,353
	인구 1인당	0.00001	0.11284	0.14147	0.01968	3.12372
	면적당	0.04829	482.19862	604.55497	84.11395	13,348.67214
서구	현황	41	8,234	9,479	2,250	186,470
	인구 1인당	0.00001	0.01650	0.01899	0.00451	0.37359
	면적당	0.04194	86.32837	99.38142	23.58985	1,955.02202
유성구	현황	66	43,466	10,413	2,263	221,232
	인구 1인당	0.00002	0.14767	0.03538	0.00769	0.75159
	면적당	0.02821	245.22426	58.74753	12.76728	1,248.13540
대덕구	현황	37	15,021	8,815	2,380	162,184
	인구 1인당	0.00001	0.07315	0.04293	0.01159	0.78984
	면적당	0.04381	219.38075	128.74251	34.75975	2,368.68702
합계	현황	238	126,227	76,774	13,532	1,608,285
	인구 1인당	0.00002	0.08120	0.05066	0.00893	1.06115
	면적당	0.04261	227.96940	142.21621	25.06669	2,979.18828

○ 대전시 각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나누어 원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박물관의 원단위 분석결과, 지역인구 1인당 시설 규모는 유성구가 0.21220㎡으로 가장 넓었고, 서구가 0.00922㎡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인구 1인당 소장자료는 유성구가 1.09254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0.00738점으로 가장 적었다.
- 대전시의 미술관은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해 있고, 지역인구 1인당 시설 규모는

유성구 0.016185㎡, 서구 0.012684㎡로 서구에 분포한 미술관의 시설 규모가 6,331㎡(유성구, 4,764㎡)으로 더 넓으나, 인구 분포에 비해 적은 면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대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원단위 분석

구 분			박물관수	규모(㎡)	소장자료
박 물 관	동구	현황	4	4,820	71,100
		인구 1인당	0.00002	0.01918	0.28295
		면적당	0.02928	35.28551	520.49780
	중구	현황	4	6,542	15,063
		인구 1인당	0.00002	0.02464	0.05673
		면적당	0.06438	105.29535	242.44326
	서구	현황	3	4,602	3,683
		인구 1인당	0.00001	0.00922	0.00738
		면적당	0.03145	48.24911	38.61397
	유성구	현황	7	62,462	321,591
		인구 1인당	0.00002	0.21220	1.09254
		면적당	0.03949	352.39492	1,814.33568
	대덕구	현황	3	3,990	87,747
		인구 1인당	0.00001	0.01943	0.42733
		면적당	0.04381	58.27370	1,281.53936
	합계	현황	21	82,416	499,184
		인구 1인당	0.00001	0.05438	0.32936
		면적당	0.03890	152.66746	924.68880
구 분			미술관수		면적(㎡)
미 술 관	서구	현황	3	6,331	
		인구 1인당	0.000006	0.012684	
		면적당	0.031453	66.376599	
	유성구	현황	2	4,764	
		인구 1인당	0.000007	0.016185	
		면적당	0.011283	26.877292	
	합계	현황	5	11,095	
		인구 1인당	0.000003	0.007321	
		면적당	0.009262	20.552386	

○ 대전시 각 지역의 문예회관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나누어 원 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역인구 1인당 문예회관수는 대덕구가 0.0000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구가 0.0000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예회관의 지역인구 1인당 객석 수 및 수용인원은 유성구가 0.01914석, 0.02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에서 0.00684석, 0.00758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4-9> 대전시 문예회관 원단위 분석

구 분		문예회관수	객석수	수용인원
동구	현황	5	1,718	1,904
	인구 1인당	0.00002	0.00684	0.00758
	면적당	0.03660	12.57687	13.93851
중구	현황	8	2,977	3,252
	인구 1인당	0.00003	0.01121	0.01225
	면적당	0.12876	47.91566	52.34186
서구	현황	11	7,366	8,910
	인구 1인당	0.00002	0.01476	0.01785
	면적당	0.11533	77.22793	93.41581
유성구	현황	7	5,633	6,250
	인구 1인당	0.00002	0.01914	0.02123
	면적당	0.03949	31.77997	35.26093
대덕구	현황	10	3,562	3,840
	인구 1인당	0.00005	0.01735	0.01870
	면적당	0.14605	52.02278	56.08296
합계	현황	41	21,256	24,156
	인구 1인당	0.00003	0.01402	0.01594
	면적당	0.07595	39.37463	44.74659

- 각 자치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문화원 시설 규모를 원단위로 산출한 결과 지역인구 1인당 시설 연면적은 중구가 0.01104㎡으로 가장 높았고, 동구는 0.00217㎡로 가장 낮았다.

〈표 4-10〉 대전시 문화원 원단위 분석

구 분		부지(㎡)	연면적(㎡)
동구	현황	-	546
	인구 1인당	-	0.00217
	면적당	-	3.99707
중구	현황	2,270	2,931.21
	인구 1인당	0.00855	0.01104
	면적당	36.53629	47.17866
서구	현황	1,953	2,732
	인구 1인당	0.00391	0.00547
	면적당	20.47599	28.64332
유성구	현황	452	2,036
	인구 1인당	0.00154	0.00692
	면적당	2.55007	11.48660
대덕구	현황	2,052	3,453
	인구 1인당	0.00999	0.01682
	면적당	29.96933	50.43085
합계	현황	6,727	11,698.21
	인구 1인당	0.00444	0.00772
	면적당	12.46110	21.66977

제2절 대전시민 문화격차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연구과제인 대전시 문화격차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대전 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의 문화향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격차를 분석하여 대전시민의 거주지별, 경제상태별 문화격차의 정도를 파악하고, 문화격차의 원인과 기제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 조사는 또한 대전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시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시민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 근거를 제공코자 하였다.

2) 조사설계

- 표집방법은 비례층화표집을 채택하였다.
- 대전시 5개 자치구별로 층화한 후 성별/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하고, 472개 가구단위 표집 후 가구내 1인을 조사하였다.
- 구별 표본 할당은 아래와 같다.

〈표 4-11〉 자치구별 표본 할당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동 구	6	10	9	8	9	8	9	7	5	6	77
중 구	4	7	8	7	9	9	5	7	6	7	69
서 구	19	21	13	22	14	24	9	22	12	14	170
유성구	13	12	8	13	9	11	10	7	7	9	99
대덕구	8	6	5	6	7	7	3	7	4	4	57
계	50	56	43	56	48	59	36	50	34	40	472

○ 조사시점 및 자료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472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후,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설문은 본 문항 35개(하위문항 포함 76개)와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배경 문항 10개로 구성하였다.
- 본 문항은 크게 거주 및 생활환경 · 지역축제, 여가활동 · 생활체육 참가, 문화예술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설문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2> 설문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거주 및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 - 거주 이유 - 거주 생활환경 만족도 및 전망 - 문화환경 여건에 대한 태도
지역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참여 횟수 - 축제 만족도 - 축제 보완 사항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빈도 -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여건에 대한 태도 -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생활체육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활동 빈도 - 생활체육 환경 만족도 -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 생활체육 격차 인식 -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 시책 - 생활체육불균형 완화 필요 시설

문화예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람 빈도 - 문화예술 행사 참여 만족도 - 문화예술행사 보완사항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여부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내용 - 문화기반시설 이용 빈도 -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 문화예술 강좌 수강 여부 -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 - 문화격차 인식정도 - 문화격차의 원인 - 문화격차 해소 시책 - 문화불균형 완화 필요 시설
--------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3〉 표본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472	100.0
성별	남자	211	44.7
	여자	261	55.3
연령별	20대	106	22.4
	30대	99	21.0
	40대	107	22.7
	50대	86	18.2
	60대 이상	74	15.7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62	13.1
	고졸	188	39.8
	전문대/대졸	189	40.0
	대학원졸 이상	28	5.9
	무응답	5	1.1
직업별	자영업	63	13.3

	판매/서비스직	62	13.1
	숙련공(생산/노무직)	27	5.7
	사무 및 기술직	65	13.8
	경영/관리직	21	4.4
	전문/자유직	36	7.6
	농림업	4	0.8
	주부	72	15.3
	학생	60	12.7
	무직	50	10.6
	무응답	12	2.5
주관적 계층 소속	하층	48	10.2
	중하층	186	39.4
	중중층	181	38.3
	중상층	48	10.2
	상층	6	1.3
	무응답	3	0.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4	9.3
	100-200만원 미만	96	20.3
	200-300만원 미만	109	23.1
	300-400만원 미만	63	13.3
	400-500만원 미만	42	6.9
	500-600만원 미만	23	4.9
	600-700만원 미만	6	1.3
	700-800만원 미만	7	1.5
	800만원 이상	18	3.8
	무응답	64	13.6
거주지 형태	단독주택	99	21.0
	다세대/다가구 주택	98	20.8
	연립주택	42	8.9
	아파트	206	43.6
	상가주택	27	5.7
자치구	동구	57	16.3
	중구	69	14.6
	서구	170	36.0
	유성구	99	21.0
	대덕구	57	12.1

2. 조사결과

1)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 현재 거주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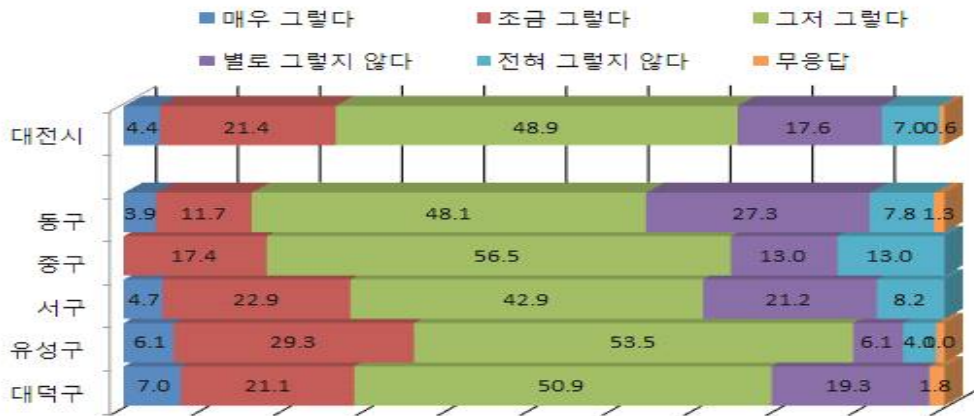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역이 보유한 문화기반시설의 구비 정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36.7%)이었다.
- 구별로 보면 유성구, 대덕구, 서구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그림 4-1〉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구비 정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이 적절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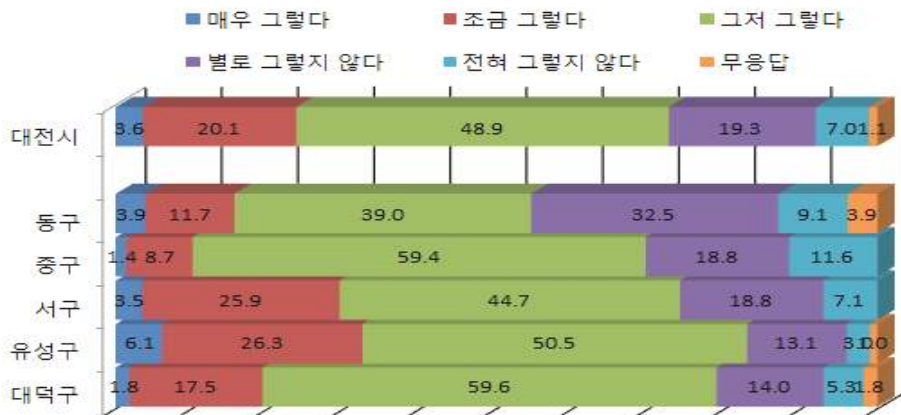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역의 문화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이 많다(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25.8%), 많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6%)고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행사 및 공연이 많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성구에서는 공연이 많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이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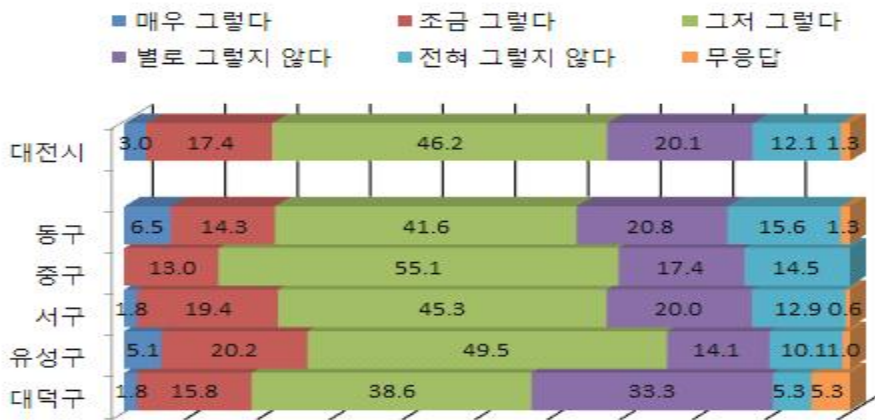
○ 현재 거주 지역에 문화강습 및 강좌가 많은가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체적으로 지역의 문화강습이나 강좌가 많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3%)고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강습 및 강좌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동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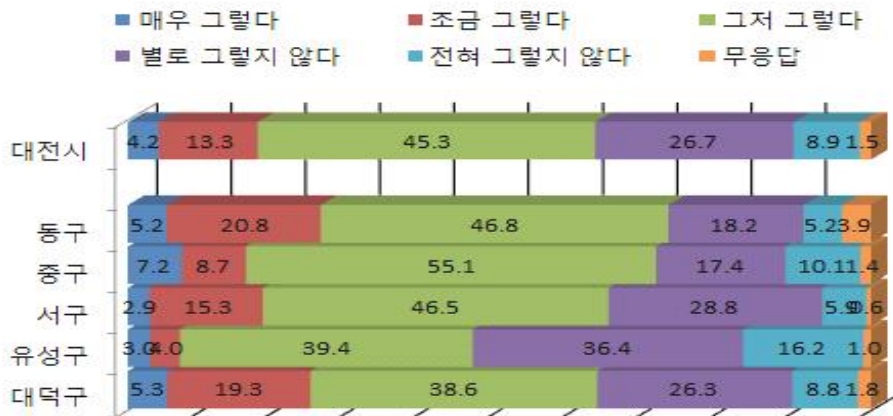
〈그림 4-3〉 현재 거주 지역에 문화강습 및 강좌가 많은가

-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체적으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공간에 대해 자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2%)으로 응답했다.
 - 모든 자치구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대덕구에서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4〉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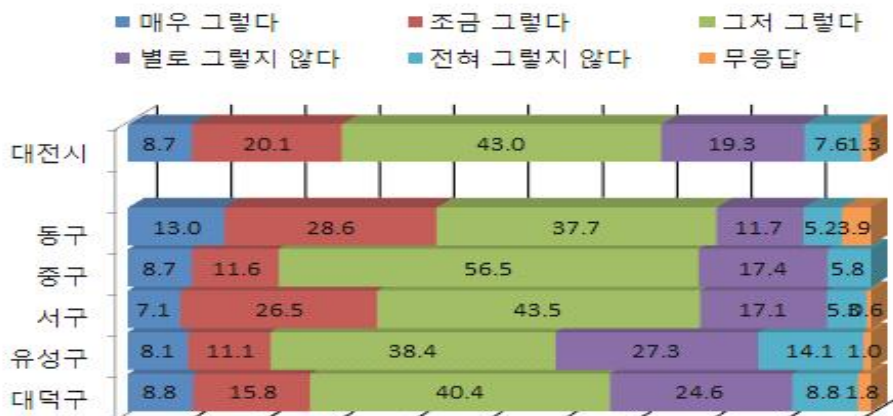
- 현재 거주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가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체적으로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6%)이 높았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 대덕구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5〉 현재 거주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가

○ 현재 거주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시 부족한가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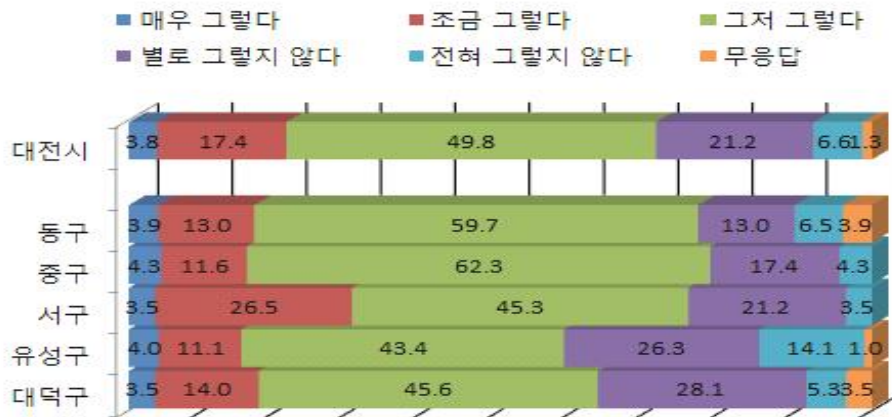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부족하다(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28.8%)라고 응답했고 충분하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9%)라고 응답했다.
- 유성구와 대덕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동구에서는 응답자의 40%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4-6〉 현재 거주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시 부족한가

○ 거주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체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에 관심이 있다(그렇지 않다, 27.8%)고 응답했다.
- 서구, 동구, 중구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유성구, 대덕구에서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7> 거주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 정도

○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 연평균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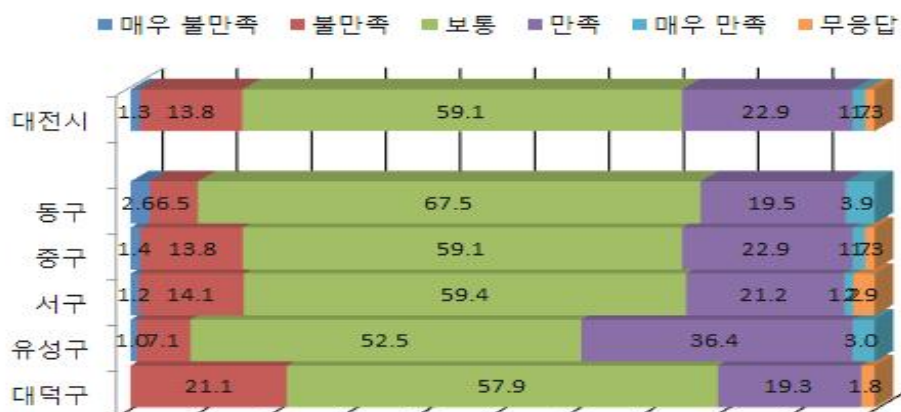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연평균 참여 횟수에 대해 응답자의 57% 이상이 참여하며, 응답자의 35% 이상이 참여 횟수를 1~2회로 응답했다.
- 중구에서 축제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나 유성구에서는 축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8〉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 연평균 참여 횟수

○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평가

-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만족(만족, 매우 만족, 24.6%)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대덕구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평가

○ 대전에서 개최된 축제에서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점

-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개최된 축제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23.5%),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23.1%),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한다(18.0%),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18.0%) 순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특히, 동구에서는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유성구에서는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21.2%)의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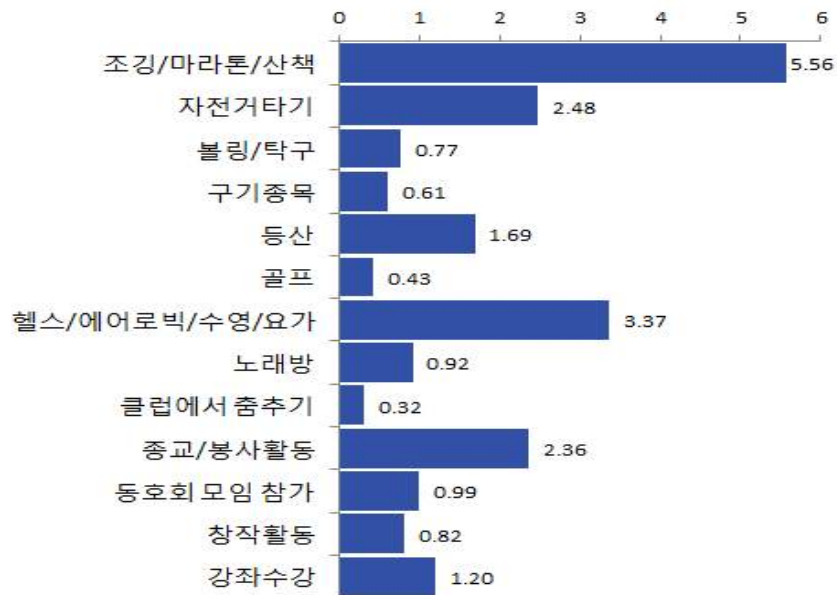


〈그림 4-10〉 대전에서 개최된 축제에서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점

2) 여가활동 · 생활체육 참가

○ 지난 한 달간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의 평균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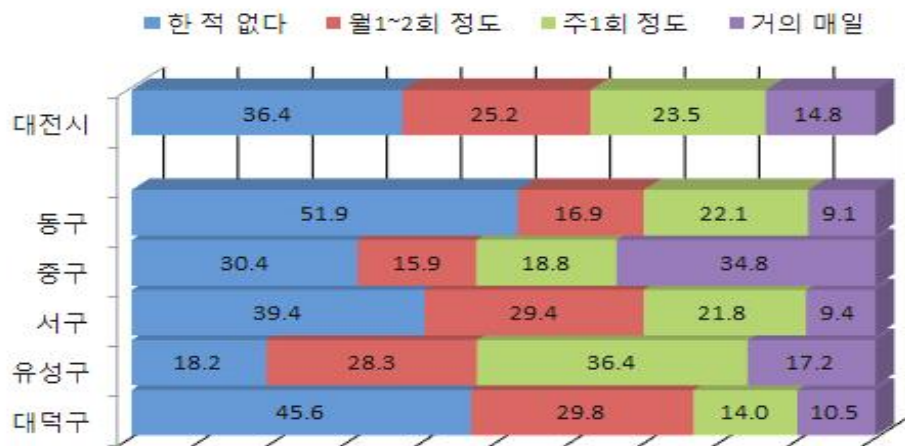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난 한 달간 여가 및 생활체육 활동에 대해 조깅/마라톤/산책(5.56회),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3.37회), 자전거타기(2.48회), 종교/봉사활동(2.36회) 순으로 자주 활동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림 4-11〉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 평균횟수

○ 지난 한 달간 조깅/마라톤/산책 빈도수

- 전체적으로 조깅/마라톤/산책은 지난 한 달간 63.6%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34.8%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2> 조깅/마라톤/산책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자전거타기 빈도수

- 전체적으로 자전거타기는 지난 한 달간 43.9%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와 유성구에서 46.5%로 가장 많았고, 동구에서 33.8%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3〉 자전거타기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볼링/탁구 빈도수

- 전체적으로 볼링/탁구는 지난 한 달간 23.1%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32.2%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14.5%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4〉 볼링/탁구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구기종목의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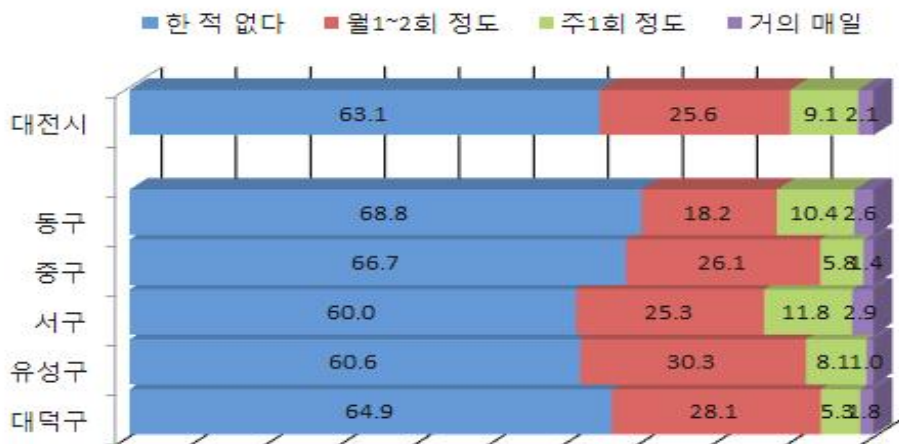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구기종목은 지난 한 달간 21%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24.3%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에서 15.6%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5> 구기종목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등산의 빈도수

- 전체적으로 등산은 지난 한 달간 36.9%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40%로 가장 많았고, 동구에서 36.9%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6> 등산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골프의 빈도수

- 전체적으로 골프는 지난 한 달간 13.8%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16.2%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에서 8.8%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7〉 골프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의 빈도수

- 전체적으로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는 지난 한 달간 31.8%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42.4%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8.7%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8〉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노래방 빈도수

- 전체적으로 노래방은 지난 한 달간 44.3%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49.4%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30.4%로 가장 적었다.



<그림 4-19> 노래방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클럽에서 춤추기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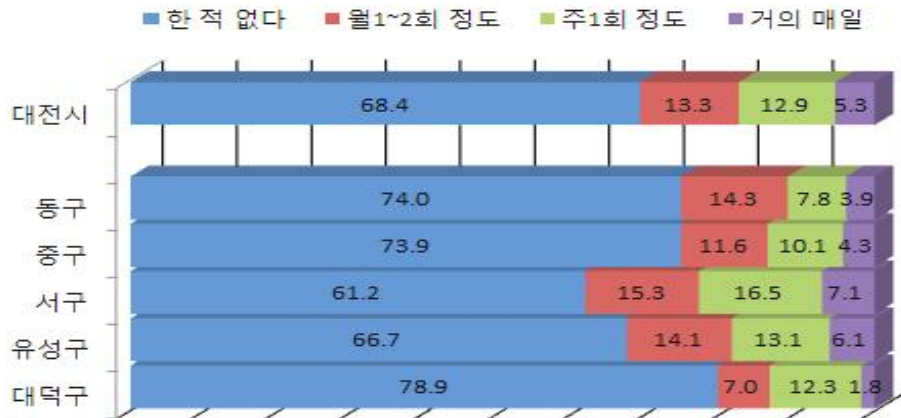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클럽에서 춤추기는 지난 한 달간 19.5%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33.8%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2.9%로 가장 적었다.



<그림 4-20> 클럽에서 춤추기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종교/봉사활동의 빈도

- 전체적으로 종교/봉사활동은 지난 한 달간 31.6%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38.8%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에서 21.1%로 가장 적었다.



〈그림 4-21〉 종교/봉사활동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동호회 모임 빈도

- 전체적으로 동호회 모임은 지난 한 달간 17.2%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19.5%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에서 16.2%로 가장 적었다.



〈그림 4-22〉 동호회 모임 참가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창작활동의 빈도

- 전체적으로 창작활동은 지난 한 달간 11.4%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15.3%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2.9%로 가장 적었다.



<그림 4-23> 창작활동 한 달간 빈도

○ 지난 한 달간 강좌수강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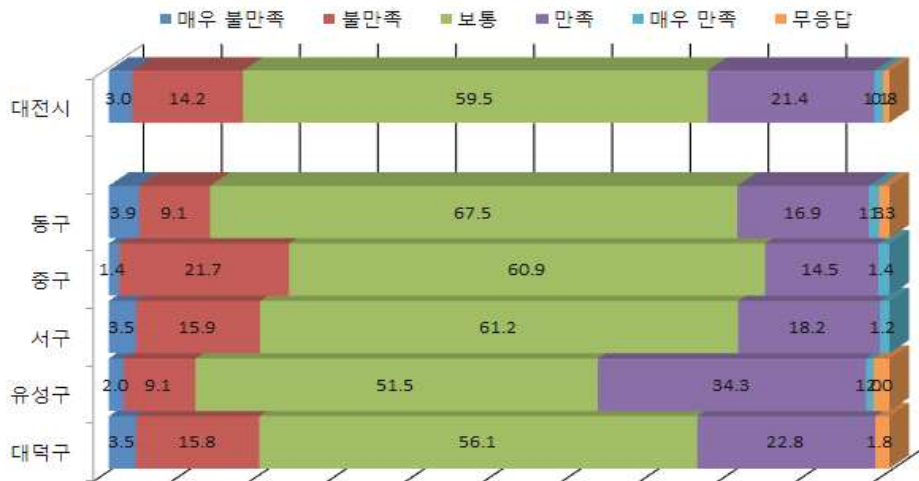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강좌수강은 지난 한 달간 15.3%가 최소 주1회 활동한 것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18.2%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5.8%로 가장 적었다.



<그림 4-24> 강좌수강 한 달간 빈도

○ 현재 거주 지역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지역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만족, 매우 만족, 22.5%)고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중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림 4-25〉 현재 거주 지역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환경 만족도

○ 현재 거주 지역에 여가활동 시설의 구비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체적으로 지역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3%)고 응답했다.
- 유성구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구에서는 응답자의 40% 이상이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림 4-26> 거주 지역 여가활동 시설의 구비 정도

○ 평일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

- 전체적으로 평일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31.8%),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18.0%),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다(16.7%) 순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특히, 중구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동구와 대덕구에서는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4-14〉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평일)

		응답	경제적 부담	여가 시간 부족	관련 시설 부족	관련 프로그램 부족	관련 정보 부족	함께 할 사람 없음	여가활동 관심 없음	어려움이 없다
		명	%	%	%	%	%	%	%	%
전체		472	18.0	31.8	16.7	5.3	10.4	2.3	14.2	1.3
거주 지역별	동구	77	13.0	22.1	24.7	5.2	16.9	5.2	13.0	0.0
	중구	69	18.8	31.9	17.4	10.1	5.8	4.3	11.6	0.0
	서구	170	25.3	25.9	12.4	4.1	9.4	1.2	21.8	0.0
	유성구	99	14.1	41.4	15.2	2.0	14.1	2.0	7.1	4.0
	대덕구	57	8.8	45.6	21.1	8.8	3.5	0.0	8.8	3.5

○ 주말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

- 전체적으로 주말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24.6%), 여가활동에 관심이 없다(21.6%), 관련시설이 부족하다(13.8%) 순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특히, 대덕구에서는 관련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서구에서는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4-15〉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주말)

		응답	경제적 부담	여가 시간 부족	관련 시설 부족	관련 프로그램 부족	관련 정보 부족	함께 할 사람 없음	여가활동 관심 없음	피곤해서	어려움이 없다
		명	%	%	%	%	%	%	%	%	%
전체		472	10.6	24.6	13.8	11.0	8.7	7.8	21.6	0.4	1.5
거주 지역별	동구	77	6.5	6.5	15.6	10.4	16.9	18.2	24.7	1.3	0.0
	중구	69	8.7	29.0	11.6	7.2	5.8	10.1	27.5	0.0	0.0
	서구	170	10.0	30.6	12.4	12.9	5.9	3.5	24.7	0.0	0.0
	유성구	99	14.1	26.3	8.1	10.1	13.1	9.1	13.1	1.0	5.1
	대덕구	57	14.0	22.8	28.1	12.3	1.8	1.8	15.8	0.0	3.5

○ 현재 거주 지역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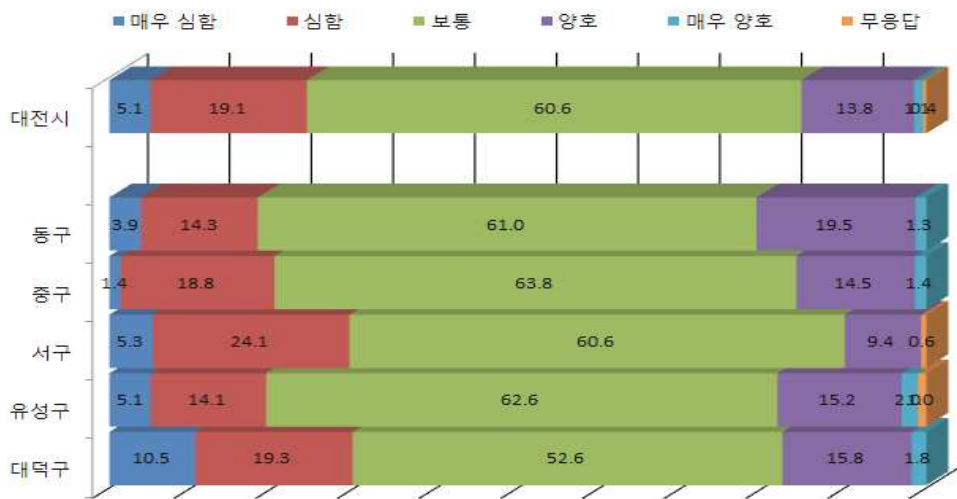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역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전혀 용이하지 않음, 용이하지 않음, 26.5%)고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중구에서는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대덕구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27> 현재 거주 지역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접근성

○ 대전시의 지역간 여가여건 및 생활체육 격차에 대한 평가

-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지역간 여가여건 및 생활체육 격차에 대해 심하다(매우 심함, 심함, 24.2%)고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와 대덕구에서는 25%이상이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4-28> 대전시의 지역간 여가여건 및 생활체육 격차

○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30.1%), 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26.3%), 생활체육여건 취약지역에 적극적 지원정책(18.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특히, 동구, 중구 및 대덕구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서구 및 유성구에서는 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4-16>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응답	생활체육 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	생활체육시 설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	생활체육여건 취약지역에 적극적 지원 정책	생활체육분야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자치구의 생활체육경 비 보조금 재원 확대	생활체육부 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무응답
		명	%	%	%	%	%	%	%
전체		472	30.1	26.3	18.9	7.8	5.9	10.4	0.6
거주 지역별	동구	77	26.0	20.8	18.2	15.6	6.5	11.7	1.3
	중구	69	43.5	26.1	11.6	8.7	2.9	7.2	0.0
	서구	170	27.6	24.1	23.5	7.1	6.5	11.2	0.0
	유성구	99	26.3	31.3	19.2	5.1	6.1	11.1	1.0
	대덕구	57	33.3	31.6	14.0	3.5	7.0	8.8	1.8

○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간이운동장(20.8%), 수영장(18.2%), 실내체육관(16.3%), 축구장(11.7%), 배드민턴장(10.4%) 순으로 응답했다.
- 자치구별로는 특히, 동구는 수영장, 서구에서는 간이운동장과 수영장, 대덕구에서는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 기타의견으로는 탁구장, 농구장, 풋살장, 댄스장 등을 응답했다.

〈표 4-17〉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1순위)

		응답	간이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기타
		명	%	%	%	%	%	%	%	%	%	%	%	%
전체		472	20.8	11.7	6.4	18.2	0.2	16.3	10.4	2.1	1.3	0.4	7.4	4.4
거주지역별	동구	77	15.6	10.4	7.8	31.2	0.0	14.3	7.8	0.0	1.3	0.0	6.5	3.9
	중구	69	21.7	10.1	7.2	14.5	0.0	18.8	7.2	1.4	4.3	1.4	10.1	2.9
	서구	170	21.2	8.8	6.5	21.2	0.0	15.9	11.8	2.4	0.0	0.0	9.4	2.9
	유성구	99	28.3	15.2	2.0	11.1	0.0	13.1	14.1	3.0	2.0	1.0	4.0	6.1
	대덕구	57	12.3	17.5	10.5	8.8	1.8	22.8	7.0	3.5	0.0	0.0	5.3	8.8

〈표 4-18〉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2순위)

		응답	무응답	간이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기타
		%	%	%	%	%	%	%	%	%	%	%	%	%	%
전체		92.3	7.7	10.1	7.6	8.7	14.4	2.3	17.0	15.1	7.8	2.5	3.0	11.0	0.5
거주지역별	동구	93.5	6.5	5.6	5.6	6.9	6.9	6.9	13.9	13.9	18.1	6.9	5.6	9.7	0.0
	중구	100	0.0	14.5	11.6	7.2	15.9	2.9	18.8	17.4	2.9	2.9	1.4	4.3	0.0
	서구	93.5	6.5	11.9	8.2	5.0	11.3	1.3	18.9	15.7	7.5	1.3	1.9	16.4	0.6
	유성구	87.8	12.2	5.7	8.0	18.4	18.4	0.0	18.4	16.1	5.7	0.0	3.4	4.6	1.1
	대덕구	85.9	14.1	12.2	2.0	8.2	26.5	2.0	10.2	10.2	4.1	4.1	4.1	16.3	0.0

기타의견 : 농구장(1), 볼링장(1)

〈표 4-19〉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3순위)

		응답	무응답	간이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기타
		%	%	%	%	%	%	%	%	%	%	%	%	%	%
전체		84.5	15.5	14.5	6.0	6.8	11.8	1.3	13.0	12.8	7.3	4.0	3.5	17.5	1.5
거주지역별	동구	84.4	15.6	16.9	1.5	4.6	10.8	4.6	9.2	15.4	6.2	4.6	6.2	18.5	1.5
	중구	97.1	2.9	14.9	4.5	9.0	13.4	0.0	9.0	11.9	13.4	6.0	3.0	14.9	0.0
	서구	83.5	16.5	13.4	7.0	7.7	10.6	1.4	14.8	13.4	4.9	3.5	3.5	18.3	1.4
	유성구	81.8	18.2	13.6	7.4	8.6	18.5	0.0	13.6	11.1	4.9	3.7	2.5	16.0	0.0
	대덕구	77.1	22.9	15.9	9.1	0.0	2.3	0.0	18.2	11.4	11.4	2.3	2.3	20.5	6.8

기타의견 : 탁구장(4), 볼링장(1), 클라이밍과 승마(1)

3) 문화예술 활동

○ 지난 1년간 예술행사에 대한 관람 경험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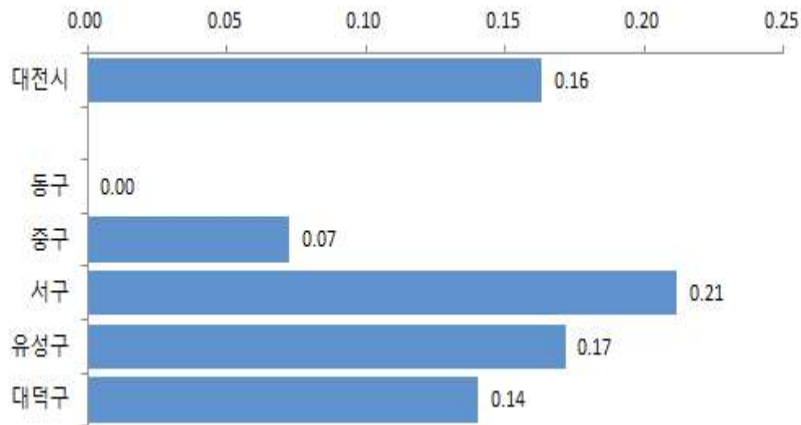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예술행사에 대해 영화(85.6%),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 전시회(42.7%), 연극(뮤지컬포함)(31.4%), 클래식음악회·오페라(29.3%) 순으로 관람률이 높았다.
- 자치구별로는 특히, 대덕구에서는 문학행사 관람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구에서는 대중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의 관람경험이 비교적 많았다.
- 소득수준별로는 600~800만원 소득 계층에서는 연극의 관람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8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에서는 영화를 응답자의 90%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응답했다.

〈표 4-20〉 지난 1년간 예술행사 관람경험 (관람률)

	응답 명	문학행사 %	미술 전시회 %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	전통예술 %	연극 %	무용 %	영화 %	대중가요 콘서트, 연예 %
전체	1011	25.1	42.7	29.3	18.4	31.4	6.4	85.6	30.0
거주 지역별	동구	175	25.7	40.6	27.4	14.3	31.4	6.9	83.4
	중구	189	29.1	47.1	27.5	12.2	25.9	2.6	88.9
	서구	340	18.8	38.2	27.4	17.6	29.4	6.8	81.5
	유성구	160	24.4	45.0	33.8	25.6	36.9	9.4	91.9
	대덕구	147	34.7	47.6	33.3	25.2	36.7	6.8	86.4
월평균 수입별	200만원 미만	65	24.6	30.8	18.5	18.5	21.5	1.5	70.8
	200~400만원	434	23.5	41.5	23.5	18.0	24.2	5.8	83.4
	400~600만원	376	24.7	43.9	34.0	18.1	35.4	7.7	89.1
	600~800만원	108	33.3	50.0	38.0	19.4	50.0	7.4	88.9
	800만원 이상	28	25.0	46.4	46.4	25.0	39.3	7.1	92.9

○ 지난 1년 동안 문학행사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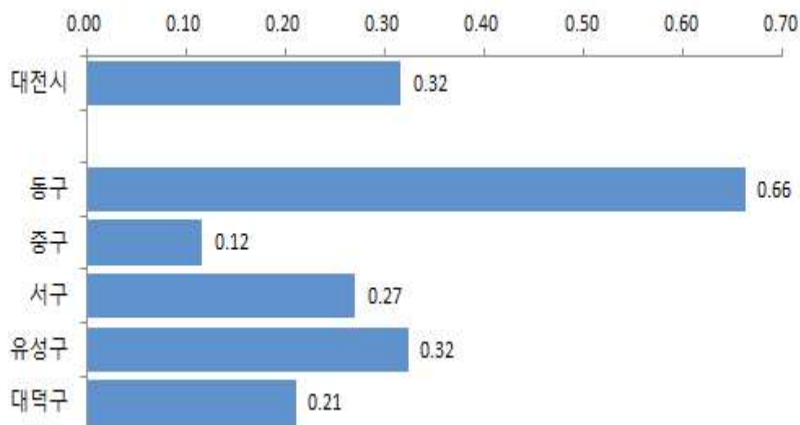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문학행사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0.16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0.21회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가 0.00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2〉 문학행사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 동안 미술 전시회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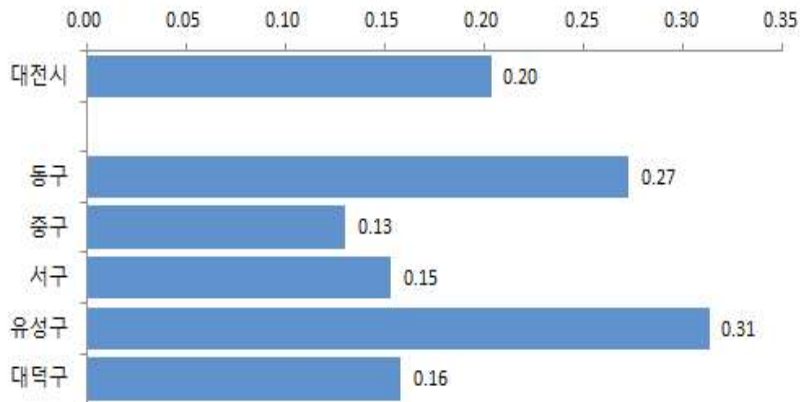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미술 전시회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0.32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0.66회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0.12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3〉 미술 전시회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 동안 클래식음악회 및 오페라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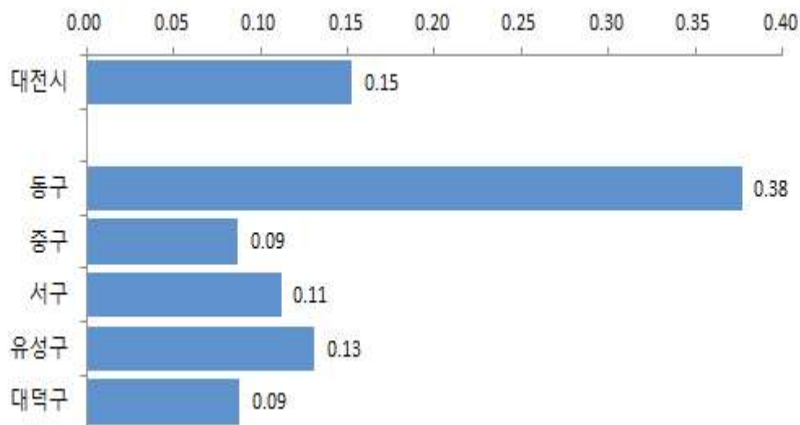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클래식음악회 및 오페라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0.20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0.31회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0.13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4〉 클래식·음악회·오페라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 동안 전통예술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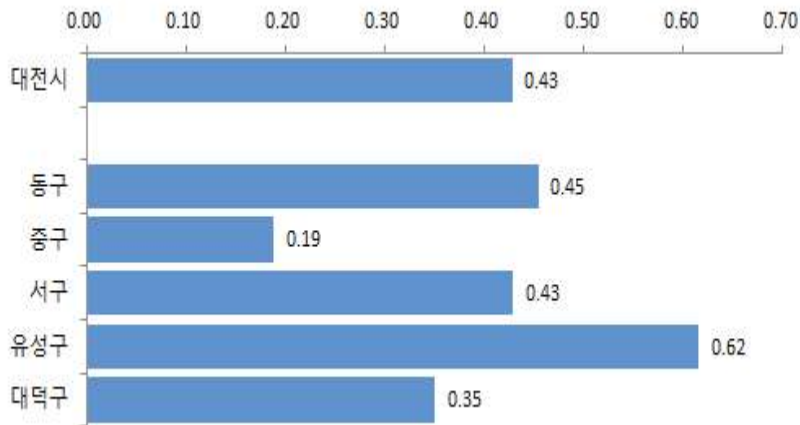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전통예술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0.158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0.38회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와 대덕구가 0.09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5〉 전통예술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 동안 연극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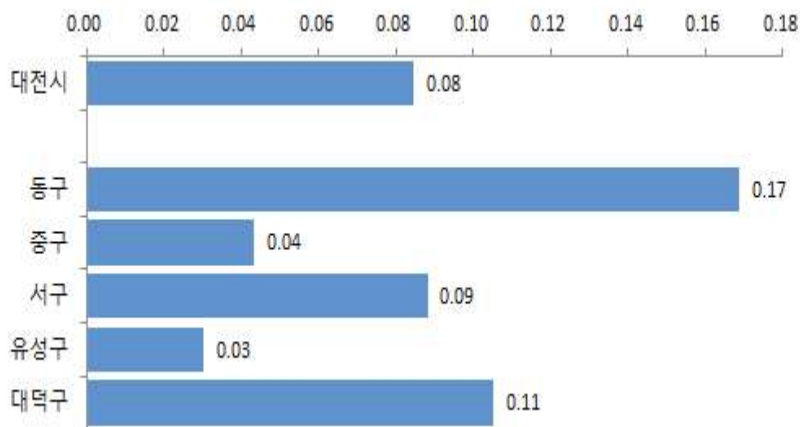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연극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0.43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0.62회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0.19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6> 연극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 동안 무용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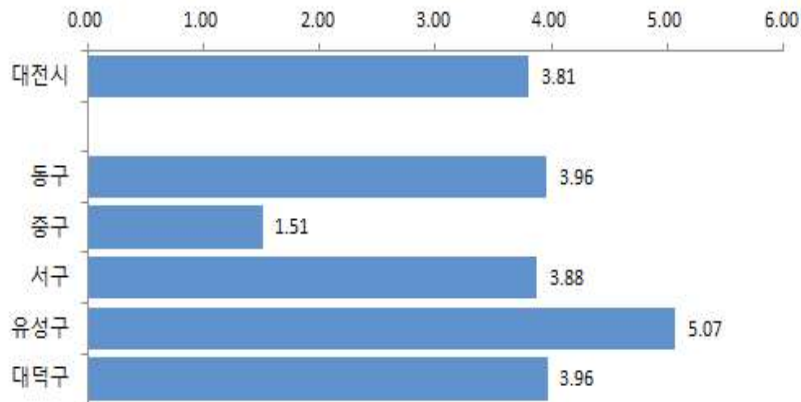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무용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0.08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0.17회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가 0.03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7> 무용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 동안 영화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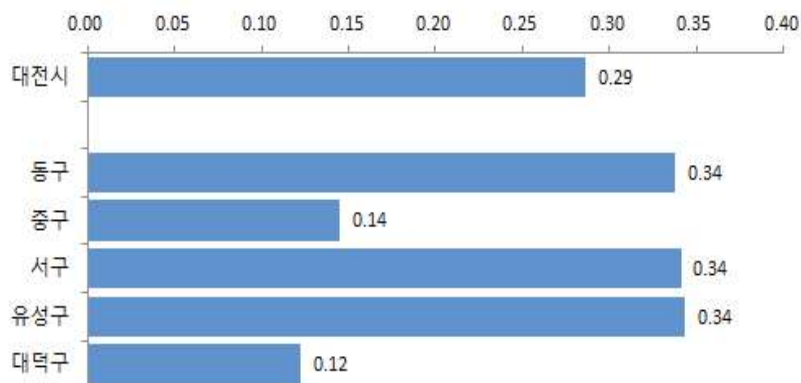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예술행사 중 지난 1년 동안 관람률이 가장 높았던 영화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3.81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5.07회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1.51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8〉 영화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 동안 대중가요 콘서트 및 연예의 평균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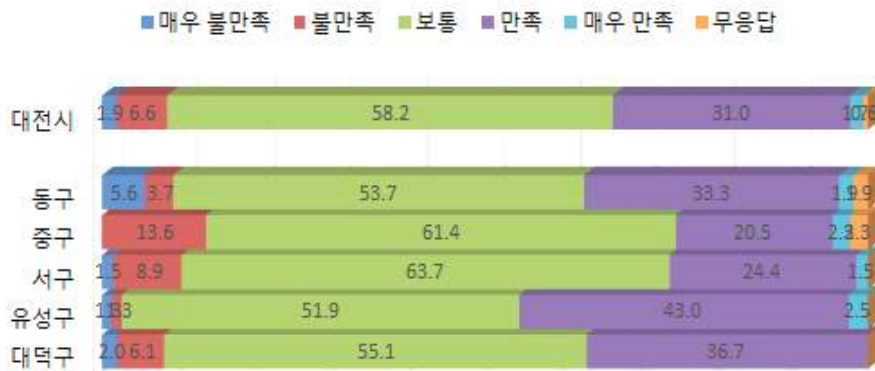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중가요콘서트 및 연예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관람 횟수는 0.29회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 서구, 유성구에서 0.34회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가 0.12회로 가장 적었다.



〈그림 4-39〉 대중가요콘서트·연예 평균관람횟수

○ 지난 1년동안 관람하신 예술행사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관람한 예술행사에 대해 만족한다(만족, 매우 만족, 32.7%)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모든 자치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유성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림 4-37> 지난 1년동안 관람하신 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 대전지역에서 관람한 예술행사에서 보완해야 할 점

- 전체적으로 대전지역에서 관람한 예술행사에서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32.4%),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23.5%),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13.6%) 순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중구, 대덕구, 서구에서는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고, 유성구는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동구는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41> 대전지역에서 관람한 예술행사의 보완점

○ 현재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및 활동 분야

-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30% 정도가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험하였고, 문학(8.3%), 생활취미(3.7%), 여행(3.7%), 음악(3.7%), 대중문화(3.6%)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중구에서 동호회활동 경험이 가장 많았고, 생활취미, 미술, 대중문화, 문학 분야에서의 경험이 비교적 많았다.

〈표 4-21〉 현재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경험 유무 및 활동 분야

		응답	있다											없다
			문학	미술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무용	대중 문화	영화	문화 유산	생활 취미	여행	
			명	%	%	%	%	%	%	%	%	%	%	
전체		472	8.3	7.7	5.3	1.8	5.9	1.8	12.4	19.5	4.1	10.7	22.5	64.2
거주 지역별	동구	25	8.0	4.0	4.0	4.0	16.0	0.0	20.0	12.0	4.0	4.0	24.0	67.5
	중구	20	5.0	15.0	10.0	0.0	10.0	5.0	5.0	20.0	0.0	10.0	20.0	71.0
	서구	75	6.7	6.7	4.0	0.0	5.3	0.0	13.3	20.0	5.3	13.3	25.3	55.9
	유성구	33	15.2	6.1	6.1	3.0	0.0	6.1	9.1	18.2	6.1	9.1	21.2	66.7
	대덕구	16	6.3	12.5	6.3	6.3	0.0	0.0	12.5	31.3	0.0	12.5	12.5	71.9

○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점

-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36.1%), 비용의 부담이 크다(30.2%), 환경이 열악하다(27.2%) 순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대덕구와 동구에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고,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중구에서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4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점

○ 지난 1년 동안 시설의 이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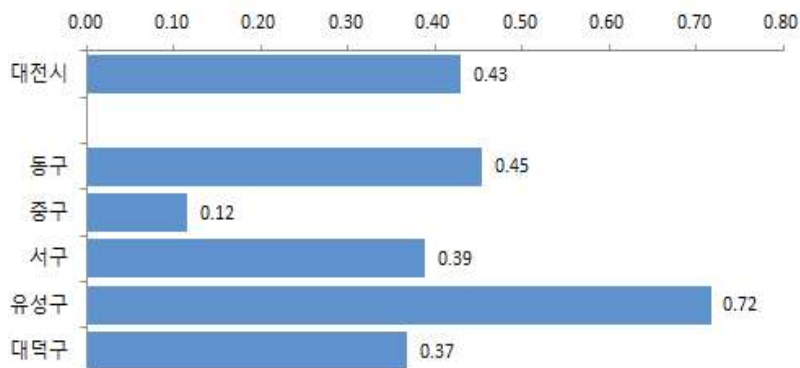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도서관(136.4%), 대전문화예술의 전당(42.5%), 대전시립미술관(25.6%) 순으로 시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도서관(136.4%), 대전문화예술의 전당(71.7%), 문화원(65.7%)에 대한 이용률이, 동구에서는 대전시립미술관(39.0%)에 대한 이용률이 높았다.

〈표 4-22〉 지난 1년 동안 시설의 이용 횟수(이용률)

		응답	대전 문화예술 의전당	대전시민 회관	대전시립 미술관	대전 연정국악 문화회관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명	%	%	%	%	%	%	%	%
전체		472	42.5	22.7	25.6	6.4	17.6	25.8	136.4	11.9
거주 지역별	동구	77	45.4	29.9	39.0	10.4	13	14.3	22.1	0.0
	중구	69	11.5	14.5	11.6	5.8	2.9	10.1	49.3	11.6
	서구	170	38.8	25.9	24.1	6.5	31.8	15.3	99.4	17.6
	유성구	99	71.7	21.2	32.3	4.0	12.1	65.7	394.6	9.1
	대덕구	57	36.8	15.8	17.5	5.3	8.8	22.8	110.5	1.8

○ 지난 1년 동안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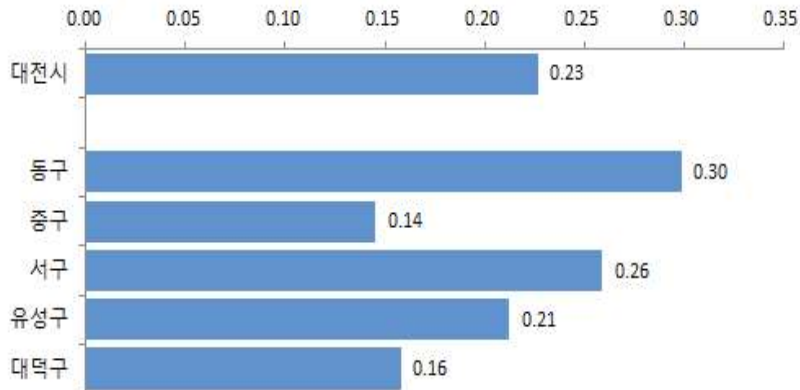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을 지난 1년 동안 평균 0.843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평균 0.72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평균 0.12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43〉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평균이용횟수

○ 지난 1년 동안 대전시민회관의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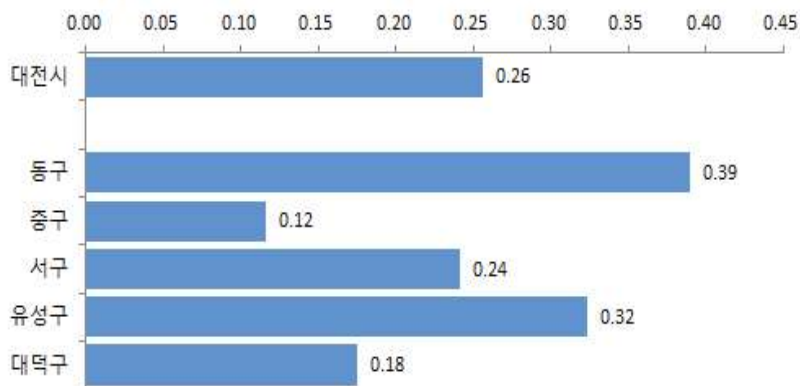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전시민회관을 지난 1년 동안 평균 0.23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평균 0.30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평균 0.14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44〉 대전시민회관 평균이용횟수

○ 지난 1년 동안 대전시립미술관의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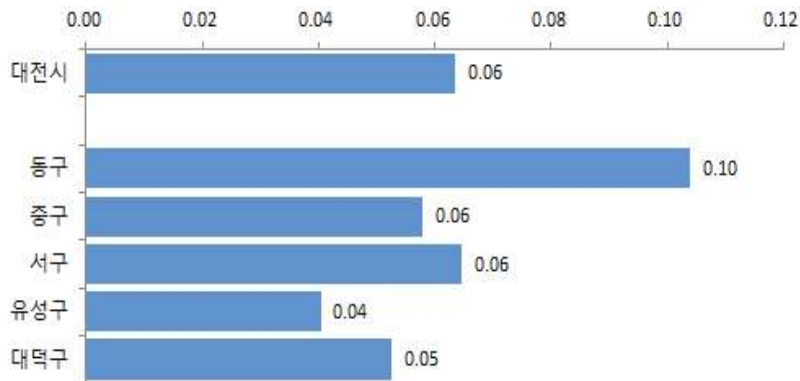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전시립미술관을 지난 1년 동안 평균 0.26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평균 0.39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평균 0.12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45〉 대전시립미술관 평균이용횟수

○ 지난 1년 동안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의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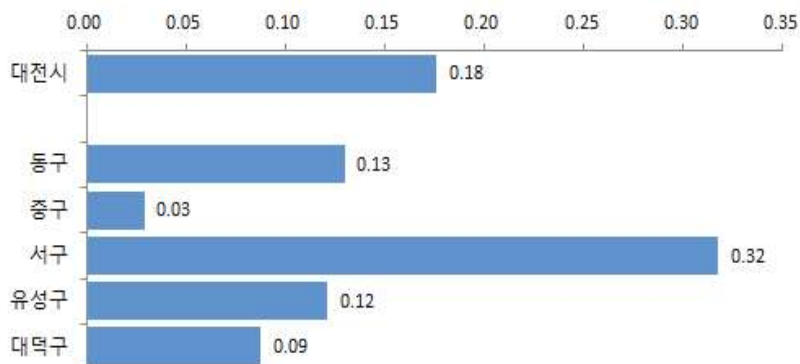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지난 1년 동안 평균 0.06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평균 0.10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에서 평균 0.04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46>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평균이용횟수

○ 지난 1년 동안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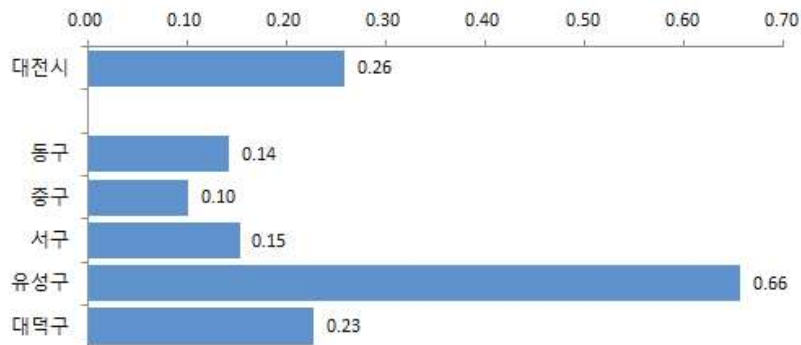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를 지난 1년 동안 평균 0.18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평균 0.32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평균 0.03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47>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평균이용횟수

○ 지난 1년 동안 문화원의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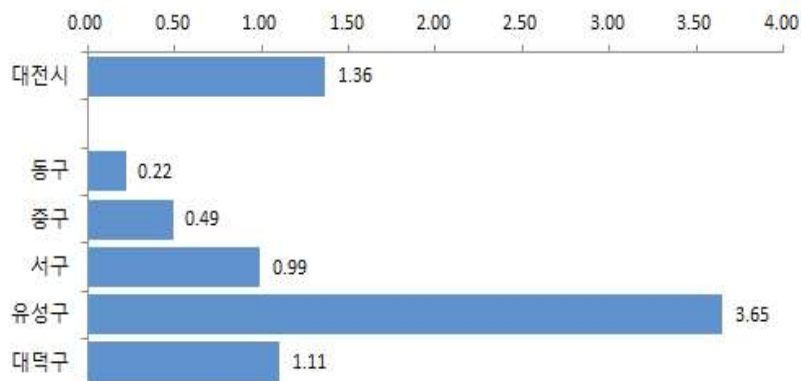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의 문화원을 지난 1년 동안 평균 0.26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평균 0.66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에서 평균 0.10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48〉 문화원 평균이용횟수

○ 지난 1년 동안 도서관의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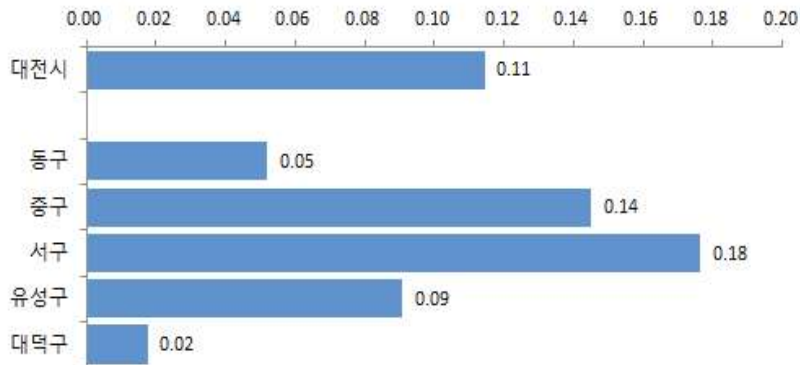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지난 1년 동안 평균 1.36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평균 3.65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에서 평균 0.22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49〉 도서관 평균이용횟수

○ 지난 1년 동안 박물관의 평균이용횟수

- 전체적으로 박물관을 지난 1년 동안 평균 0.11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평균 0.18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에서 평균 0.02회 이용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4-50> 박물관 평균이용횟수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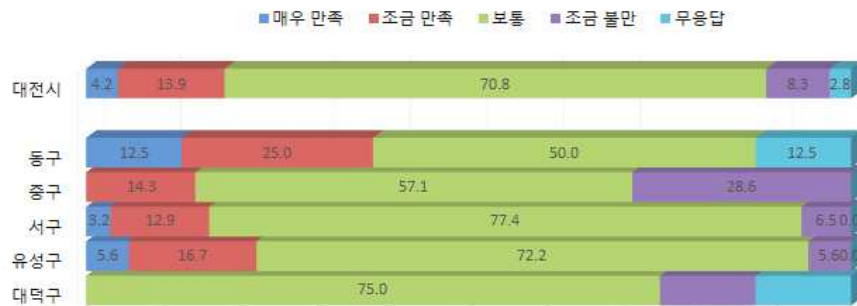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주변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조금 만족, 47.6%)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와 유성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대덕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모든 자치구에서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1>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 대전시민회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대전시민회관과 주변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매우 만족, 조금 만족, 18.1%)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대덕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으나, 모든 자치구에서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2〉 대전시민회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 대전시립미술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대전시립미술관과 주변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매우 만족, 조금 만족, 55.5%)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구와 대덕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모든 자치구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3〉 대전시립미술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주변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매우 만족, 조금 만족, 29.7%)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서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모든 자치구에서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4>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 지역 문화원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원과 주변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매우 만족, 조금 만족, 28.1%)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대덕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모든 자치구에서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5> 문화원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 도서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도서관과 주변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매우 만족, 조금 만족, 28.6%)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대덕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서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모든 자치구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6〉 도서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 박물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 전체적으로 박물관과 주변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매우 만족, 조금 만족, 13.5%)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대덕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모든 자치구에서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57〉 박물관 및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 학교 교육 이외에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았는지 여부 및 강좌 분야

-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 이외에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지 않았다(없다, 71.4%)는 응답이 많았다. 강좌나 강습을 받은 응답자는 영화(33.1%), 생활취미(25.5%), 연예(11.0%) 순으로 경험 많았다.
- 자치구별로는 유구에서는 영화, 대덕구에서는 생활취미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표 4-23> 학교 교육 이외에 관련 강좌나 강습 받았는지 여부 및 내용

		응답	있다										없다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무용	연예	영화	문화 유산	생활 취미	
			명	%	%	%	%	%	%	%	%	%	
전체		145	8.3	2.0	2.8	4.8	4.8	3.4	11.0	33.1	3.4	25.5	71.4
거주 지역별	동구	21	19.0	4.8	4.8	14.3	9.5	0.0	9.5	28.6	0.0	9.5	75.3
	중구	20	20.0	5.0	5.0	0.0	0.0	5.0	5.0	20.0	15.0	25.0	76.8
	서구	58	1.7	3.4	3.4	3.4	3.4	3.4	15.5	34.5	1.7	29.3	69.4
	유성구	33	6.1	0.0	0.0	6.1	3.0	3.0	9.1	42.4	3.0	27.3	64.6
	대덕구	13	7.7	0.0	0.0	0.0	15.4	7.7	7.7	30.8	0.0	30.8	77.2

○ 강좌나 강습을 받은 기관 및 장소

- 전체적으로 강좌나 강습을 받은 응답자는 사회단체(18.5%), 백화점·할인점 등의 부설기관(18.5%), 공공단체(17.0%) 순으로 강좌나 강습을 받은 기관 및 장소를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중구에서는 백화점·할인점 등의 부설기관, 서구에서는 사회단체, 유성구에서는 공공단체의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그림 4-58〉 강좌나 강습을 받은 기관 및 장소

○ 문화예술관련 강좌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

-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관련 강좌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로 문화강좌에 관심이 없다(28.3%),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26.6%), 흥미있는 강좌가 없어서(17.0%)라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중구에서는 문화강좌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구에서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4-24〉 문화예술관련 강좌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

		응답		무응답	시간 여유가 없어서	거리 및 교통	강좌 내용 부실	흥미있는 강좌가 없어서	경제적 부담	문화강좌 에 관심 없음
		명	%	%	%	%	%	%	%	%
전체		417	88.3	11.7	26.6	12.9	4.3	17.0	10.8	28.3
거주 지역별	동구	71	92.2	7.8	26.6	12.9	4.3	17.0	10.8	28.3
	중구	64	92.8	7.2	11.3	8.5	5.6	28.2	8.5	38.0
	서구	146	85.9	14.1	34.4	15.6	1.6	14.1	7.8	26.6
	유성구	83	83.8	16.2	26.7	19.2	4.1	7.5	15.8	26.7
	대덕구	53	93.0	7.0	31.3	7.2	4.8	25.3	8.4	22.9

○ 현재 거주 지역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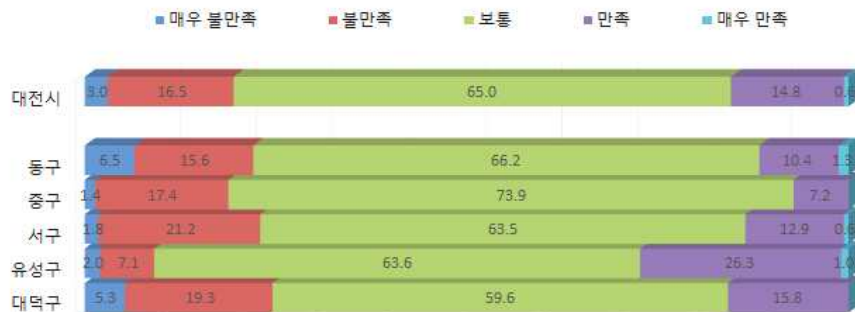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현재 거주 지역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려움으로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28.8%), 문화행사 정보가 부족하다(12.7%), 비용이 많이 든다(11.7%) 순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서는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서구에서는 거리 및 교통이 멀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 기타의견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25〉 현재 거주 지역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응답	비용	시간	시설 불편	행사내용 부실	거리가 멀다	문화행사 정보부족	함께 갈 사람없음	관심 없음
		명	%	%	%	%	%	%	%	%
전체		472	11.7	28.8	4.7	8.7	11.7	12.7	2.8	18.6
거주 지역별	동구	77	6.5	26.0	7.8	14.3	10.4	9.1	7.8	16.9
	중구	69	11.6	29.0	4.3	8.7	5.8	13.0	1.4	26.1
	서구	170	12.4	26.5	4.7	4.7	20.6	11.8	2.4	17.1
	유성구	99	14.1	35.4	4.0	10.1	5.1	13.1	1.0	16.2
	대덕구	57	12.3	28.1	1.8	10.5	5.3	19.3	1.8	21.1

○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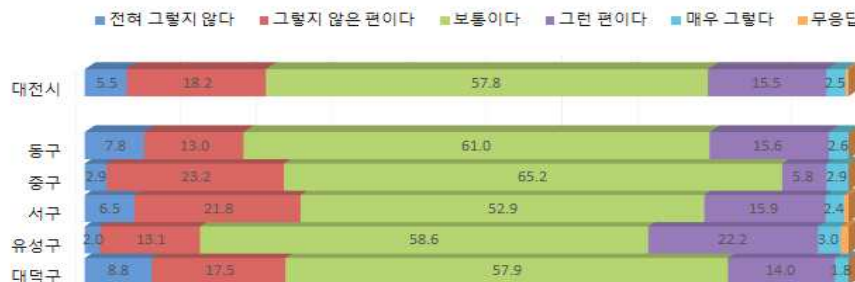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불만족, 19.5%)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나, 유성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59>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 현재 거주 지역 및 인근의 문화 여건 구비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체적으로 현재 거주 지역 및 인근에서 다양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7%)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60> 거주 지역 및 인근의 문화 여건 구비 정도

○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 격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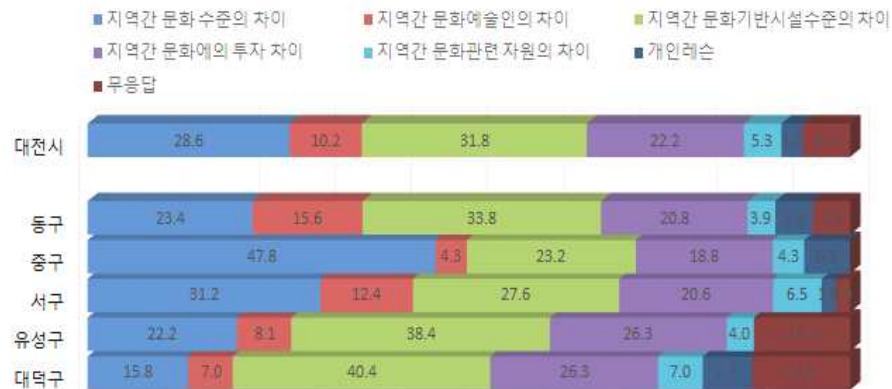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하다(매우 심함, 심함, 32.0%)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모든 자치구에서 전체 응답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림 4-61〉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 격차

○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격차(문화불균형)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

-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을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수준의 차이(31.8%), 지역간 문화 수준의 차이(28.6%), 지역간 문화에의 투자 차이(22.2%) 순으로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전체 응답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림 4-62〉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격차에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

○ 대전시의 지역 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불균형 완화를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31.1%),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23.5%), 문화여건 취약지역에 적극적 지원정책(18.9%) 순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 중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 대덕구에서는 문화여건 취약지역에 적극적 지원정책이, 유성구에서는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의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그림 4-63>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현재 거주 지역에 영화관(30.9%), 도서관(18.8%), 콘서트홀(11.3%), 미술관(10.8%)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자치구별로는 중구에서 미술관의 응답이, 서구에서는 도서관의 응답이, 유성구에서는 영화관, 미술관의 응답이, 대덕구에서는 영화관, 도서관의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표 4-26〉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1순위)

		응답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소극장	콘서트홀	구민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시장	기타
		명	%	%	%	%	%	%	%	%	%	%	%
전체		97.0	10.8	30.9	18.8	6.1	5.9	11.3	4.3	4.4	0.6	2.7	2.8
거주 지역별	동구	95.0	13.0	26.0	18.2	10.4	2.6	10.4	0.0	7.8	0.0	5.2	1.3
	중구	100.0	15.9	23.2	20.3	2.9	5.8	11.6	10.1	4.3	1.4	2.9	1.4
	서구	95.0	7.6	23.5	20.6	8.8	8.8	8.2	5.9	4.1	0.6	1.8	5.3
	유성구	93.0	12.1	36.4	19.2	5.1	5.1	12.1	2.0	4.0	1.0	0.0	3.0
	대덕구	100.0	5.3	45.6	15.8	3.5	7.0	14.0	3.5	1.8	0.0	3.5	0.0

기타의견 : 충분함(14)

〈표 4-27〉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2순위)

		응답	무응답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소극장	콘서트홀	구민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시장
		%	%	%	%	%	%	%	%	%	%	%	%
전체		89.0	11.0	6.3	15.8	19.0	5.3	14.0	12.1	6.3	8.8	4.5	7.9
거주 지역별	동구	87.0	13.0	10.4	10.4	11.9	3.0	9.0	20.9	11.9	4.5	7.5	10.4
	중구	94.0	6.0	3.1	16.9	23.1	4.6	20.0	6.2	6.2	7.7	4.6	7.7
	서구	83.0	17.0	6.4	19.1	12.8	8.5	12.8	12.1	6.4	12.8	0.7	8.5
	유성구	93.0	7.0	4.3	19.6	21.7	6.5	17.4	8.7	5.4	6.5	4.3	5.4
	대덕구	96.0	4.0	7.3	12.7	25.5	3.6	10.9	12.7	1.8	12.7	5.5	7.3

〈표 4-28〉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3순위)

		응답	무응답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소극장	콘서트홀	구민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시장
		%	%	%	%	%	%	%	%	%	%	%	%
전체		82.0	18.0	5.6	4.8	11.9	7.2	15.2	12.7	5.7	12.4	2.5	22.0
거주 지역별	동구	83.0	17.0	4.7	1.6	7.8	6.3	15.6	15.6	1.6	18.8	1.6	26.6
	중구	93.0	7.0	3.1	4.7	21.9	6.3	7.8	9.4	9.0	15.6	1.6	20.3
	서구	74.0	26.0	7.9	4.8	11.9	5.6	15.1	15.1	5.6	10.3	4.0	19.8
	유성구	88.0	12.0	5.7	2.3	9.2	9.2	18.4	17.2	5.7	6.9	1.1	24.1
	대덕구	82.0	18.0	6.4	10.6	8.5	8.5	19.1	6.4	6.4	10.6	4.3	19.1

제3절 해외 문화격차 해소 정책 사례

1. 문화 향수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 사례

1) 영국의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New Audience Program) 중 일반관객 부문

-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관객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소수집단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반관객과 관련한 Ambassador marketing 전략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Ambassador marketing이라는 전략은 표적집단이나 개인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 모으는 방법이다.
 - 표적집단에서 대사를 모집해서 그 대사가 홍보역할을 하며 자신의 집단에게 할인된 단체표를 제공하거나 예술가들과의 리셉션과 같은 행사를 마련해서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또는 관공서 대기실, 쇼핑몰, 지하철역과 같은 새로운 일상적 공간에서 예술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시간을 유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함. Love Art Later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런던의 갤러리들이 전시회 오픈 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하고 이와 함께 바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한다.

2) 영국의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New Audience Program) 중 노인 부문

- Hackney Music Development는 Hackney Music Development Trust라는 단체가 주관한 프로젝트로, 런던 시내 노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 사회계획집단은 전문 예술가 집단과 함께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음악행사를 기획하거나 모니터하는 일을 담당한다.
 - Silverscreen은 극장과 노인단체, 대학 등이 연합하여 마련한 프로젝트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멤버십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영화홍보메일을 보내고, 시사회에

참여시키고 할인티켓을 제공하는 등 영화관람을 장려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모이고 영화교육을 받는 등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화한다.

3) 프랑스의 다양한 할인제도

- 파리의 국공립 공연장에서는 공연 당일 남은 표를 시작 15분전에 싼 값에 판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학생, 실업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상 가장 비싼 좌석이 많이 남아 있어 정상가의 약 5분의 1 가격으로 공연을 즐기도록 한다.
- 사설극장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할인제도 가운데 하나로 개막공연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 18시-18프랑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 제도의 요지는 2월에 18시 대의 영화를 보면 18프랑에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파리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다.
 -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무료로 주는 것으로 연극의 경우도 ‘무대 위의 파리’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4) 뉴욕시 공연예술 발전 기금 공연티켓 할인 프로그램

- 뉴욕시에서는 우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외계층에게 뉴욕에서 공연되는 공연예술을 홍보하고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우편명부에는 학생, 교사, 노조원, 퇴직자, 공연예술전문가, 성직자, 군인, 장애인 등만 등록할 수 있다.

5)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예술사업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장애인 배우나 무용가가 속한 극단이 전국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6) 뉴욕의 Theatre Access Project(TAP) 프로그램

- TAP는 장애인들이 공연관람이 편리한 좌석을 예약하도록 도와주고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뉴욕주 예술평의회와 협력하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공연 제작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장애인들이 극장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례

1) 영국의 창조적 파트너십

- 5-18세의 취약 아동 및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관련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미술관, 아트센터, 웹 디자이너 등의 문화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관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패션디자인, 방송작가, 안무, 연극연출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처음에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들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개의 학교가 선정되어 확산되고 있다.

2)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Act

- 예술이 “핵심적인 교육 과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준수

하도록 한다.

-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핵심적인 교육 과목에 대해서 교사 훈련, 학교 개혁, 기술적 프로그램 등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적절성 유지 사례

1) 영국 밀튼키즈시의 지역사회 예술 향수 체계 구축

- 밀튼키즈시는 1967년부터 시작하여 40년 가까이 현재에도 계속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예술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다.
- 도시계획상에서 근린주구 마다 만남의 장소(meeting place)라고 불리는 건물들을 하나씩 건립하여 주민 회의의 장소로 혹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여가활동 단체나 봉사단체의 근거지로 다용도로 활용하게 한다.
- 또한 문화예술 기반시설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공원을 지을 때 야외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잔디밭이라던가,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을 지을 때 이것들을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나 예술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자생적으로 지역공동체 운동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령, 지역사회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강습을 하고 배운 것을 발표하는 공연을 하거나, 이러한 공연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예술단체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예술활동을 일류 예술가들의 공연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예술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며 도시 내 주요 행정건물, 철도역 등에 비치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포한다.

2) 미국의 Creative Communities

-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 국립예술진흥원(NEA)과 주택도시 개발부가 협력하여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 가령, 시카고의 메릿 음악학교는 매주 통요일 오후 시카고 공공주택 거주 청소년에게 악기 연주, 음악사, 음악 이론 등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 5 장

대전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제1절 문화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2절 문화 기반시설 . 방안

제3절 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 진흥 방안

제 5 장 대전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제1절 문화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사회 확충 및 강화 방향

- 우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토록 한다. 기본 방향은 문화기반시설의 공간적 분포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한번이 아닌 단계적으로 년차별로 문화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 공연 및 문화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가 대전지역내 넓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 이와 같은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문화지구 등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문화기반시설의 경우에 보통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자치구별로 인구밀도나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인구당 시설수나 면적당 시설수에서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 행정구역상이 아닌 인구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거나, 생활권 개념에 입각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체계 등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증가를 정책적 목표로 고집할 필요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특성화하고 단순한 강습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지역주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의 예술행사 등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생산자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문화예술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가 있다.

- 예를 들어, 대전시 자치구가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치구 내의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모임(문화패, 지역동호회)에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을 위한 문화봉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지역문화기반시설이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더 큰 사회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고유한 지역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가령, 지역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사진전이나 지역사회 내 문화재 또는 명소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우선 지원

- 다음으로는 지역내 문화향유 소외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결과 자치구별 큰 격차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하지만 생활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내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분명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소외계층들이 지역적으로 밀집하여 거주지 격리가 발생하는 현상은 또 다른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대전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던가, 소외지역 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소외지역 청소년들은 정서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동아리 활동 등에 가칭 문화도우미나 예비교사를 파견하여 멘토(mento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영상, 건축, 도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컴퓨터 음악,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으로 예술교육의 장을 넓혀 이들의 취미생활이 진로나 장래의 직업과 연관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에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토록 지원하고 소외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사업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호와 신장

- 소외계층의 문화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방안이나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고령층에 대한 문화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 본 과제 연구시 살펴보았듯이 연령간 문화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이상 노인층의 경우는 문화향수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을 동질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노인의 욕구나 기호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 먼저,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층을 위한 문화공간 확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취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공연리허설 무료관람, 유적방문 및 새로운 문화현장에 대한 견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인전용 문화레저공간도 필요하지만 극장,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센터 등 기

존 공간에서 노인들이 젊은이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와 고용부와 협의하여 대전에서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문화관련 일자리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역문화유산 해설, 공예품 제작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문화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본 연구에서 장애인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문화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태어나서 한번도 영화관에 가보지 못했다는 장애인이 37.2%였고, 49.2%는 지난 1년간 한편의 영화도 본 적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향수가 어려운 이유로 38.8%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으며, 19.8%는 편의시설 미비, 8.7%는 교통불편을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물리적 장벽에 대해서 모든 문화예술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사설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시설수용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여가생활 및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 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장애인의 자기표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소수집단의 정체성 및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문화전달체계를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 대전 지역 내의 소외계층, 소수집단, 비주류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권리, 나아가 자신들의 욕구와 의미체계, 삶의 양식을 통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소수집단 스스로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와 장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수집단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기회, 공연장이나 방송매체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나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 존재하는 지원센터나 쉼터, 교류장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문화향수 저변 확대

○ 여가기반시설을 시민의 여가 욕구에 맞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앞의 설문조사에서 대전시민의 여가 및 생활체육 만족도는 낮은 반면에 욕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야외에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경향은 결국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보면, 주말과 주중 모두 스포츠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휴식과 옥내활동, 스포츠레저활동과 관광활동을 제외하면 영화와 공연관람이 다음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활동으로 나타난다.
- 대부분이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며 더 많이 향수하고 싶어 한다.

- 반면에 대부분인 문화향수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 간의 상관성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이 들게 된다.
- 따라서 관심이 많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클래식, 뮤지컬, 미술전시 등의 순수예술에 대해서 관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수요자 중심의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현재까지 주로 예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문화를 공급하려 노력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시민들이 소비에서부터 직접 생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동네문화가꾸기 사업은 이러한 좋은 예로,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 및 직접 참여 기회 확충을 위해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과 자치구별 시민참여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에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수요자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단순히 관람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기획하거나 스태프로 참여하는 등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접 문화활동을 체험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치구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다.
- 가령, 어떤 극단이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연극학교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배우나 스태프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미술단체가 학교를 순회하며 미술전시회를 열면서 한쪽에서는 작품을 직접 만들 기회를 준다던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수 있다.

-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5. 문화비용에 대한 지원과 보조

-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비용 등 향유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과 보조의 양과 질을 정해야 한다.
 -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와 문화활동이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과 높은 비용이 큰 장벽이 된다.
 - 앞선 조사결과에서도 시간이 없다는 돈이 없다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내용보다 비용을 더 많이 고려하는 등 비용이 행사 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생업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은 근본적으로 적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변화해야 하므로 문화정책에서만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 따라서 문화기반시설 운영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비를 보조해주는 것 외에도 문화기반시설 운영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정하거나 행사장소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 일터나 거주지 근처로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 문화비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저소득층이 부담스러워 하는 높은 문화 비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할인제도, 리펀드 제도, 바우처 제도, 좌석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화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티켓을 할인해준다던가, 문화행사 티켓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좌석 의무할당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좌석 의무할당제는 일정한 비율의 좌석을 소외계층을 위한 쿼터로 남기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절 문화예술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대전광역시의 확충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OECD, UNESCO,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지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거점도서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건립 기준 포함)에 의거하되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 5-1〉 광역시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구분	기준
공공도서관	인구 5만명당 1개소 + 거점도서관 1개소
박물관·미술관	인구 5만명당 1개소 + 시립박물관 1개소 + 시립미술관 1개소
문예회관	인구 1인당 0.005(0.5%)석
문화의 집	인구수 5만명당 1개소

〈표 5-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기반시설 최소기준(향후 10년간)

구분		계	최소기준설정*		
			2011	2016	2021
공공도서관**		23개관	▪ 기준:공공30관 ▪ 추가:시립1관 ▪ 최소기준:31관 ▪ 부족수:8관	▪ 기준:공공31관 ▪ 추가:시립1관 ▪ 최소기준:32관 ▪ 부족수:9관	▪ 기준:공공32관 ▪ 추가:시립1관 ▪ 최소기준:33관 ▪ 부족수:10관
박물관 미술관		26개관	▪ 기준30관 ▪ 추가: 1관(시립박물관) 1관(시립미술관) ▪ 최소기준:32관 ▪ 부족수:6관	▪ 기준31관 ▪ 추가:1관(시립박물관) 1관(시립미술관) ▪ 최소기준:33관 ▪ 부족수:7관	▪ 기준32관 ▪ 추가: 1관(시립박물관) 1관(시립미술관) ▪ 최소기준:34관 ▪ 부족수:8관
문예 회관	시설수	24개관	▪ 최소기준:7,619석 ▪ 현황:21,143석	▪ 최소기준:7,806석 ▪ 현황:21,143석	▪ 최소기준:7,913석 ▪ 현황:21,143석
	객석수	21,143석	▪ 과부족율:278%(초과)	▪ 과부족율:271%초과	▪ 과부족율:267%초과
문화의집		15개관	▪ 최소기준:30관 ▪ 현황:15개관 ▪ 부족수:15관	▪ 최소기준:31관 ▪ 현황:15개관 ▪ 부족수:16관	▪ 최소기준:32관 ▪ 현황:15개관 ▪ 부족수:17관

* 대전광역시의 통계청추계인구 2011(1,523,840명), 2016(1,561,387명), 2020(1,582,790명)에 기초해서 최소기준 설정

** 공공도서관의 최소기준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에 근거하여 설정

- 대전광역시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추진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의 생활권별 개발계획(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대생활권에 필요한 거점시설(시립박물관, 거점도서관 등)의 입지는 대전광역시 전역을 고려할 때 전체 시민의 시설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곳을 선정하되, 시설의 이용은 지역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거점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문화예술시설의 건립사업을 기본적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관리·운영 계획은 대전문화재단, 구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기 설립·운영되는 문화기반시설, 문화문화예술단체, 수요자 등과 연계하는 ‘대전문화예술정보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시설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기 건립·운영되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신설보다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설과 인력 활용은 관내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한다.

<표 5-3> 2011년 · 2016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최소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시설명	객석수	
기 준 건 립 시 설	용운도서관	한밭교육박물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2177	신탄진문화의집
	가오도서관	대전보건대박물관	우송예술회관	1214	회덕문화의집
	성남도서관(분관)	대전대학교박물관	배재대21C관	1990	송촌문화의집
	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평송청소년수련원	1362	YWCA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충남전기통신박물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2279	도솔청소년문화의집
	평생학습관	동산도기박물관	엑스포아트홀	1105	장대청청소년문화의집
	갈마도서관	배재대학교박물관	과학기술원강당	1001	갈마동청소년문화의집
	가수원도서관	화폐박물관	한남대성지관	2008	중구청청소년문화의집
	유성도서관	충남대학교박물관	대덕구청청소년수련관	506	대덕구청청소년문화의집
	구죽도서관	충남대자연사박물관	침례신학대강당	300	동구청청소년수련관
	안산도서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박물관	대덕문예회관	260	대덕구청청소년수련관
	신탄진도서관	국립중앙과학관	가톨릭문화회관	329	어은동청소년수련실
	홍도도서관(주민센터)	한남대학교박물관	꽃님이공연장	100	탄방동청소년수련실
	관암도서관(분관)	한남대자연사박물관	연정국악문화회관	1118	구죽청소년수련실
	가양도서관(주민센터)	대청댐물문화관	대전평생학습관	600	삼천청청소년문화의집
	자양도서관(주민센터)	옛터 민속박물관	한밭도서관	428	
	무지개도서관(분관)	한의학역사박물관	용운도서관소강당	140	
	둔산도서관	대전 선사박물관	동구청청소년수련관	140	
	어린이도서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가오도서관소강당	124	
	엑스포분관	한국조보박물관	중구문화원	185	
	진잠도서관	대전아쿠아월드	세이아트홀	252	
	노은도서관	시립미술관	신탄진도서관	100	
	송촌도서관	남철미술관	안산도서관강당	130	
		아주미술관	신탄진문화의집강당	188	
		여진미술관	21세기대화로소극장	100	
		이응노미술관	대전시청	672	
			목원대 콘서트홀	504	
			갤러리아 타임월드	168	
			대전시립미술관강당	180	
			서구문화원아트홀	265	
			문화센터	848	
			송촌문화의집	50	
			무형문화재전수회관	200	
			대덕종합사회복지관	120	
		계: 23개관	계: 26개관	계: 40개관	21,143
최소 기준 설정	2011 기준: 공공 30관 추가: 시립 1관 최소기준: 31관 부족수: 8관	기준: 30관 추가: 1관(시립박물관) 1관(시립미술관) 최소기준: 32관 부족수: 6관	최소기준: 7,619 석 현황: 21,143석 과부족률: 278% 초과 부족율: 없음	최소기준: 30관 현황: 15관 부족수: 15관	
	2016 기준: 공공 31관 추가: 시립 1관 최소기준: 32관 부족수: 9관	기준: 30관 추가: 1관(시립박물관) 1관(시립미술관) 최소기준: 33관 부족수: 7관	최소기준: 7,806석 현황: 19,249석 과부족률: 267% 초과 부족율: 없음	최소기준: 31관 현황: 15관 부족수: 16관	
* 대전광역시의 통계청추계인구 2011(1,523,840명), 2016(1,561,387명)에 기초해서 최소기준 설정					

2. 추진전략

- 대전광역시 단위에서 필요한 거점 문화기반시설(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시립국악원 등)은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상 대생활권 개념에 기초해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규모 문화기반시설(지역 도서관, 구민문예회관, 문화원 등)은 중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문화기반시설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대전광역시의 ‘신탄진’, ‘유성’, ‘둔산’, ‘송촌’, ‘진잠’, ‘보문’ 등 6개 중생활권역 중 현재 진잠 생활권은 지역 문화원이 없으므로 이 지역의 문화원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소규모 공연장 및 복합문화체험센터, 문화의 집, 마을문고 등)은 소생활권역 주민들의 시설접근성을 고려하고, 소생활권의 중심지역(인구 및 주거 밀집지역 등)을 축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 소생활권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소규모 공연장, 문화의 집, 마을문고 등)의 확충은 인근 주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적으로 기존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기 존재하는 문화예술시설과 새로 확충되는 문화예술시설 간 기능적 특성에 따른 공간적 집적화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 사업의 우선순위는 일차적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수요에 따라 설정하되 향후 대전광역시의 개발계획(도안신도시 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는 신규 개발의 순서에 따라 계획 초기단계부터 설정하여 추진하며, 인구 밀집지역 및 새로 개발되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건립은 일차적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 최저 문화복지 기준 설정 및 문화복지정책과의 연계를 위하여 문화복지정책의 기준선을 설정한다.
- 소득계층별 문화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문화바우체제도 확대 및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 취약계층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보조금 방식의 지역사회 문화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도입한다.
- 미래지향적 문화복지 투자를 위하여 드림스타트사업 내 문화서비스 분야를 신설한다.

2. 세부추진방안 및 실천 과제

1) 참여하는 문화예술 향유

1-1.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확대

기본취지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생활 속에서 쉽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노인회관,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단지 등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고한다.
-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을 공연장에 초청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모셔오는 공연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고한다.
- 노인, 저소득 층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사업내용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한다.
 - 소외집단의 문화예술의 향수성을 신장시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분 류	사업내용
공연형태	-움직이는 공연 확대(주민자치센터, 노인회관,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단지 등) -예술교육공연 확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술 교육 공연) -틈새공연 확대(점심시간, 창사기념일 등 직장근무 현장 공연 등) -자연과 함께하는 공연 확대(숲속의 열린음악회)
공연주체	-시립예술단(교향·무용·합창·청소년·국악), 예술단체 등 -관객, 장소에 맞는 작품 구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기관

- 모셔오는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 노인회관,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단지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거나 모셔오는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 소외집단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화원, 도서관, 문예회관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다양한 체험을 가미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외집단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집단의 문화복지를 향상한다.
- 소외집단의 문화예술향수를 위한 사랑의 티켓 제도를 확대한다.
 - 소외집단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랑의 티켓 제도를 운영한다.
 - 기업의 후원, 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외집단을 위해 문화예술 사랑의 티켓을 발매하고 이들에게 제공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기존 참여하는 문화예술 사업성과 분석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중기(2017-2018)	기업,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한 예산 확충 및 사업 추진
장기(2019-)	소외 지역 및 집단 대상으로 사업 범위 확대

1-2.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기본취지

- 여가활동의 패턴이 가족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가족단위 문화예술 향유여건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생활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족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단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창작체험교육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한다.
- 가족참여 중심의 문화예술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체험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조성한다.

사업내용

- 가족참여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주말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가족 참여형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한다.

유형	내용
창작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서예, 음악, 합창, 연극 등 창작체험 프로그램 ▷ CG, 영상, 애니 등 문화콘텐츠 창작체험 프로그램 ▷ 인문+과학+예술이 융합된 창작문예 프로그램 발굴 운영
창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합창, 연주, 연극, 무용(춤), (대중)음악 연습 및 교육 프로그램 ▷ CG, 영상, 애니 등 문화콘텐츠 창작교육 프로그램 ▷ 대전연합대학의 문화예술아카데미와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

- 대전시민대학의 문화예술아카데미 과목에 콘텐츠창작, 가족합창, 연극, 연주 등 가족단위 연습 및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가족단위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한다.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주말 가족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 가족단위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가족단위 티켓, 가족참여 경연 대회 등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 가족예술제를 기획하여 개최한다.
 - 매년 5월 중에 가족합창, 연극, 연주 등 가족별로 3명 이상이 참여하는 가족 예술제를 개최한다.
 - 대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예총, 민예총,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등이 행사에 참여하며 시에서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도우미방을 운영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가족참여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중기(2017-2018)	사업예산 확충 및 시설,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장기(2019-)	가족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지원

1-3. 다문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기본취지

- 대전이 국제적인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 성숙성을 키워야 한다.
- 문화적 차이를 허용하는 문화적 포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산하고 시민의 국제적인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점차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정착을 돕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 중앙의 다문화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보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다문화 지원사업이 주로 타 부서에 의해서 추진되다보니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다문화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 지역에서도 중앙의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다문화 지원정책의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진방안

-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칭)다문화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활동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지역의 유휴시설을 임대·지원하여 이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지원한다.

공간	내용
다목적실	-회의, 공연, 세미나 등 모임이 가능한 공간
도서관 (박물관)	-세계 각국의 도서 비치, 해외 물품들 전시
카페	-세계 각국의 음악, 영화, 차, 음료 등

○ 자치구문화원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대전문화재단은 다문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구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문화원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형	내용
언어교육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부모교육	-생활멘토(일상생활, 자녀교육, 가정의례, 한국문화 등)
방문교육	-한국어 책 읽어주기, 전통악기 다루기, 전래동요(이야기), 미술, 음악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유학생 현황 조사
중기(2017-2018)	구별 다문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공간 및 프로그램)
장기(2019-)	다문화 사업 범위를 5개 구로 확대

1-4.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기본취지

- 체험적 문화향유 추세에 부응하여 참여적 문화예술 향유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 시민의 자발적인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참여적 문화예술 향유활동을 지원한다.
- 능동적인 참여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시킴으로써 문화예술향유의 수준과 폭을 넓히고, 다양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한다.

현황과 문제점

- 참여적 문화예술 향유가 확산되면서 점차 다양한 특색의 친목, 취미 등 소규모 문화예술 모임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 문화예술 동호회 경험이 있는 시민의 비율이 거의 25%(2015. 1)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그에 대한 정책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 도시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이 뿌리내리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개요

-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의 운영 실태, 구성원, 장르, 규모, 예산 등 포괄적

인 실태분석에 기초해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 시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의 장르별, 분야별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한다.
 -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방식을 벗어나 모임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 인력, 장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가 주축이 된 종합 문화예술제 등을 기획하여 추진한다.
 - 아마추어 동호회의 문화예술제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아마추어 동아리 예술제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발굴하여 개최한다.
 - 행사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의 운영 실태, 성원 구성 등에 대한 파악
중기(2017-2018)	사업예산 확충 및 소외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장기(2019-)	집단별, 지역별, 장르별 사업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 추진

1-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취지

- 과학문화도시 대전을 이끌고 갈 지역의 청소년이 인문적 소양, 과학적 사고,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 자라나는 청소년이 인문+과학+예술의 융합적 창작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지역의 전문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할 문화콘텐츠 창작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창작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개요

- 창작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가칭)의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중심의 인문+예술의 융합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대전CT센터’의 창작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의 과학+예술의 융합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인문+과학+예술의 융합에 기초한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미래의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 중·고등학교, 민간예술단체 등에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동아리 행사를 지원한다.

- 문화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의 장르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체험 및 실기가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청소년 문화예술 콘텐츠창작경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 영상,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콘텐츠 창작경연대회를 지원한다.
 - 경연대회 입상자는 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공채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방안을 강구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중기(2017-2018)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장기(2019-)	지원사업의 장르별 범위 확대

2) 문화예술 향유여건 개선

2-1.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기본취지

-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시민의 독서문화를 진작하고, 인문적 소양을 고양한다.
- 인구 수준을 감안하여 2013년까지 인구 5만명 당 1관 수준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 공공도서관의 신설과 더불어 기존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독서문화를 진작하는데 기여한다.

현황과 문제점

- 대전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 장서와 좌석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OECD 기준으로 볼 때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이 요구되며, 특히 장서나 인력 서비스 등 관리 운영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2008년 이후 도서관 수는 6개관이 증가했으나 2012년 현재 1석당 인구수는 오히려 1명이 증가되었으며, 1관당 건물 연면적이 3,930㎡에서 2,925㎡로 감소된다.
- 1관당 연간 장서의 증가수도 2012년 현재 10,015권에서 6,287권으로 62.8% 감소하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도서구입비의 비율도 9.0%에서 5.7%로 감소한다.

- 지난 3년간 개관한 6개 도서관이 너무 소규모로 건립되어 1관당 건물 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진방향

○ 공공도서관 건립

- 2015년 현재 광역대도시 기준 공공도서관의 부족수는 8개관이며, 추계인구 비율로 2016년까지 9개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2)	최소기준설정		
	2015	2016	2021
23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공공30관 ▸ 추가:시립1관 ▸ 최소기준:31관 ▸ 부족수:8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공공31관 ▸ 추가:시립1관 ▸ 최소기준:32관 ▸ 부족수:9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공공32관 ▸ 추가:시립1관 ▸ 최소기준:33관 ▸ 부족수:10관

- 1단계 사업으로 2016년까지 3개 공공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되, 1개관은 유성구 테크노벨리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입지시키고, 2개관은 유성의 도안신도시 개발구역에 건립토록 한다.
- 2단계 사업은 2016년까지 2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되, 각각 중구에 1개관, 서구에 1개관을 건립토록 한다.
- 중구의 경우는 기존 테마도서관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 기간을 제1단계 추진 계획 포함시켜 대민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 새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문화, 정보, 교육, 독서, 소통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립한다.

〈표 5-8〉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이용자 수 (명)	시설		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5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10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30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50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1. 이용자 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이용자 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이용자 수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이용자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 전산화자료 및 행정자료

○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한다.

-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시설, 인력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1단계사업: 테크노벨리 1개관, 도안심도시 2개관 건립
중기(2017-2018)	2단계사업: 중구 1개관, 서구 1개관 추가 건립
장기(2019-)	3단계사업: 5개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

2-2. 마을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본취지

- 마을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일상화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마을도서관(문고)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한다.
- 마을도서관과 ‘책읽기 운동’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인문적 소양을 키우는 문화적 기반을 강화한다.

현황과 문제점

- 대전시에 많은 작은(마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수의 관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독서와 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보다 학생들의 독서실의 기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작은도서관은 자치구에 최소 기준만을 갖추어 신고하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쉽게 폐관될 수 있다.
- 작은도서관은 운영에 영리성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지역 주민 또는 운영단체 유관자 등 지역이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등에서 회비제 운영을 통해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도서관의 공공성이 제한을 받게 된다.
- 독서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작은도서관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수서, 정리, 도서 관리 등 체계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진방안

- 공공도서관과 목적, 기능, 역할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호보완기능을 강화한다.
 - 도서관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독자적인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는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 마을문고의 운영위원회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마을도서관과 지역주민의 후원 체계를 조직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투자, 인력, 도서 구입 등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작은도서관별로 기본적인 도서를 구입하되, 영역을 특화하여 전문도서를 갖추으로써 장서구입 예산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작은도서관 시설, 인력, 운영 실태 조사연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중기(2017-2018)	모범적인 마을도서관을 선정하여 사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기(2019-)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사업 지원 범위 확대

2-3.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기본취지

- 지방문화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의 문화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문화예술기관인 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한다.
- 자치구 단위의 문화예술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하는 허브시설로서 문화원의 사업 방향을 설정한다.
- 문화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확고한 지원체제 구축 및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의 변화된 문화환경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문화원의 재정은 국비와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이 수입의 전부여서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 문화원의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만을 시나 구에서 보조받아 진행하고 있어, 부분적인 사업 이외에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 문화원이 국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

게 되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 문화원은 대부분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와의 관계가 자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추진방안

- 문화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경우 인건비 부분을 시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시, 구 단위로 메세나 운동을 활성화하여 지원하고, 재단형식의 기금출연으로 문화원 운영의 안정화와 독립성을 강화한다.
- 특성화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경우 시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 대상의 다문화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사업개요

- 주민 동아리와 아마추어 문화단체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 주민 동아리와 아마추어 문화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생활 속에서 문화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 문화예술동아리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을 강화한다.
 -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문화예술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면 적합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 아마추어 단체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아마추어 동아리의 전시나 공연의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 지원하고, 피드

백과 평가회를 통한 역량 강화로 풀뿌리 문화활동의 수준을 제고한다.

○ 함께 사는 문화공동체 구현에 적극 기여토록 한다.

-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생애주기별 문화, 이식문화 등에 기반한 문화공동체를 창출한다.
- 생애주기별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생애주기	내용
청소년기	- 마을의 문화 및 지역사를 알 수 있는 탐방, 체험 프로그램 진행. 삶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성년기	-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과 병행.
노년기	-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진행(단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결혼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한글교육프로그램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진행
 - 향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지역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예술단체(인), 학교사회단체, 지역소재기업(인), 주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하여 문화 활동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 지역학에 기반한 스토리텔러 양성 및 활동기반을 구축한다.

- 지역학 연구와 연구에 기반한 지역학 쉽게 알기 책자 발간 및 자료를 활용한 스토리텔러를 양성하여, 학교 및 프로그램 동아리등과 연계하여 마을을 알고 알리기 운동 확산하여 도시가치를 제고한다.

○ 지역문화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지역문화를 가장 적합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지역축제를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전통이 들어날 수 있도록 브랜딩한다.
- 마을축제 전문가, 문화기획자,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특색이 들어날 수 있는 축제만들기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후 특성에 맞는 마을축제를 구현하여 공동체의 역량을 모으고 마을에 생동감과 자존감을 고양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문화원 운영예산 확충 지원
중기(2017-2018)	문화원과 대전문화재단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기(2019-)	시민밀착형 위탁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2-4.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기본취지

- 주민자치센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시설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고양한다.
- 시민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각 동별로 소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UNESCO 기준에서 볼 때 대전에는 ‘문화의 집’ 관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의 집 시설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부족한 문화의 집을 추가로 신축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센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문화의 집을 추가로 신축하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의 집에 비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권에 밀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문화 사랑방’ 기능을 하는데 보다 유리하다.

사업개요

-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문화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활동의 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다원화한다.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창작, 전시, 교육, 휴식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주민의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제1단계 사업 : 기존의 유휴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 기존 유휴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민자치센터의 유휴 공간 현황을 파악한다.
 - 주민의 문화활동의 수요에 따라 기능별로 유휴 공간의 리모델링해서 생활밀착형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가능하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젊은 연령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 제2단계 사업 : 자치구의 문화원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문화원은 구민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보존, 스토리발굴, 다문화사업, 문예교육 등을 담당하는 반면에 주민자치센터는 보다 생활권 중심의 주민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주민자치센터에 가능한 한에서 문화의 집이 갖추고 있는 설비를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의 집 세부조성지원기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10조관련)
 363㎡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인터넷 부스(PC 4대이상) 비디오 부스(VTR 2대이상)
 CD 부스(CD플레이어 4대이상)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트 1대)
 문화창작실(공방)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화재·도난방지시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1단계 사업추진: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중기(2017-2018)	2단계 사업추진: 문화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장기(2019-)	생활 밀착형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2-5. 대전둘레 산길잇기 지원

기본취지

-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대전 둘레의 산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한다.
- 대전 주위의 산들을 연결하는 산행길을 조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등산을 즐기며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 대전의 산들을 걷는 체험을 통해서 시민이 대전의 자연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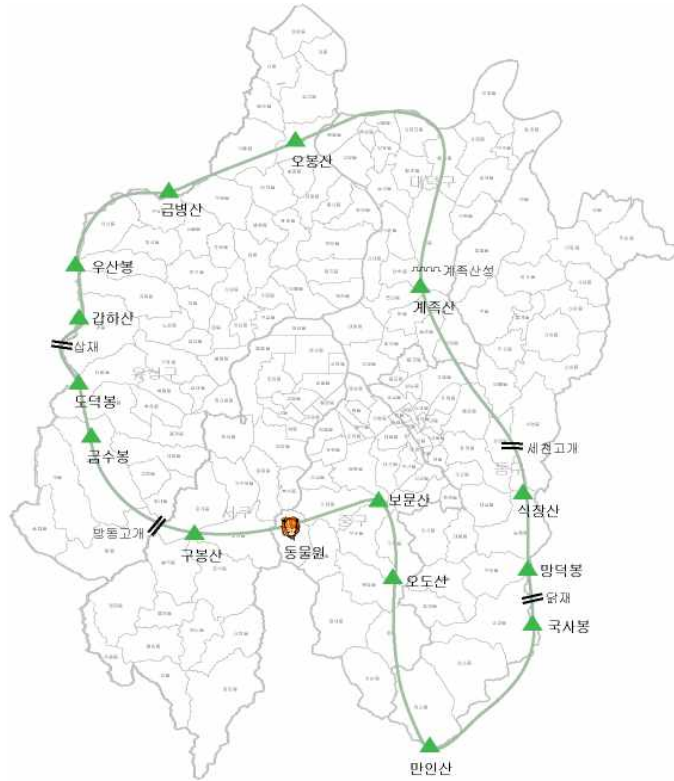
현황과 문제점

- 그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대전 둘레의 산길을 잇는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전둘레 산길잇기’ 공식 카페 회원이 이미 5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아직도 군사보호시설 등 시민들의 산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표지판 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산행이 되도록 산행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하천으로 인하여 끊어져 있는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결로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추진방안

- 시민의 편의와 생태적 관점에서 대전둘레산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
- 시민들이 쉽게 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산길을 정비하고 안내표시(접근로, 안내표시, 주차시설 등)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증진토록 한다.
- 산을 자른 길 위로 생태다리를 설치하고 하천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천길과 다리를 정비한다.
- 산길잇기 사업을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녹지공간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명	사업내용
안내등반 다양화	‘토요산행’, ‘일요산행’ 등 아이템을 발굴 추진
편의 시설 확충	참여 시민을 위한 안내판, 표지판 등 확충
연결코스 확충	주변의 산과 연결하는 산행로 발굴, 세종시까지 연결로 확대
문화재 답사	‘산성’ 등 주변 문화재 답사 코스 발굴
일반 도보길 개척	산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둘레잇는 도보길 발굴
스토리 발굴	옛길(나뭇꾼 길), 옛날고개(과거길), 물길, 마을길, 고개길 등
지역사랑 운동	산길잇기 대중화, 카페회원의 확충, 산길잇기 홍보
단체 법인화	산길잇기 모임을 법인화하여 공익단체화 함



〈그림 5-5〉 대전산길 연결경로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1단계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중기(2017-2018)	2단계 사업: 예산확보 및 단계적 사업추진
장기(2019-)	지속적인 민간주도 사업추진 및 지원 강화

2-6. 열린 문화공간 조성

기본취지

- 공공영역에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발성과 자생성을 유지하면서 그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통하여 아마추어 동호인회 등의 자율적, 자발적 활동을 촉진 및 활성화한다.
- 공공 공간이 대중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현존하는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일조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에는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아마추어 동아리, 동호인회 등이 있다.
- 이러한 단체, 모임들은 그 특성이 자발적이고 자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활동이 일상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단체 및 모임의 구성이 직장, 학교, 지역, 계층 등 다양한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영역이나 계층, 지역 등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특성을 보인다.
-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모임이나 연습,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대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전시의 각 자치구별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문화원 및 기타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 등이 있다.
- 이러한 시설들의 경우, 아마추어 동호인회 등 문화예술활동 단체들에게 공간을 일부 개방하고 있으나, 개방시간이나 범위, 개방 조건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 다양한 아마추어 모임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내용

- 자생적, 자발적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 문화활동단체에게 공공(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서비스 형태로 보상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활동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단체들에게는 창작, 연습 및 발표 기회와 공간의 제공을 확대한다.
 - 생활 속의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삶에 대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주체 역량을 제고한다.
- 제1단계 사업 : 공공시설 및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문화활동 단체에 대하여 활동 공간 제공을 확대한다.
- 제2단계 사업 : 공공(문화)시설과 이용 단체간의 협약서 체결을 통하여 시설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공공(문화)시설을 열린 문화공간화하는 것의 최대 제약점은 관리 책임의 문제이다.
 - 이용 단체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시설을 활용토록 계약함으로써 관리 책

임성을 부여한다.

○ 제3단계 사업 : 문화통화 제도와의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

-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자칫 이용단체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이를 금전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공연, 전시 등)로 보상하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
- 문화통화제도는 한편으로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용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의 기여 및 발표 기회 확대라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문화공간 실태조사 및 공간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중기(2017-2018)	문화클럽 등과 시범 연계 운영
장기(2019-)	공간 확대 개방

2-7. 지역 문화통화 유통체계 구축

기본취지 및 목표

- 지역 내 문화자원의 효율적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의 다양한 문화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통화형태로 적립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문화통화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 일상 속의 문화예술관련 공급자와 수요자 연계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지역에서 실시되는 문화, 여가, 체육, 기타 다양한 행사 등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 지역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 진흥과 문화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한다.
 - 각 자치구 차원에서 문화통화 유통체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 현존하는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일조한다.

문화통화제도란 이용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 아닌 가상의 문화통화로 지불함으로써 향후 이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서비스를 통하여(공연이나 전시 등) 환원하는 방식의 통화유통 형태를 의미함

현황 및 필요성

- 문화통화와 관련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 문화통화는 지역 내 문화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문화활동의 창작, 유통,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문화자원이 부족한 자치구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창작자의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러한 방식은 지역이 생활 속 문화활동을 매개로 문화공동체, 지역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업내용

-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통화를 부여하여, 축적된 문화통화만큼 추후 문화서비스 보상을 고려한다.
- 문화통화 자원분배와 관련정보, 서비스를 매개할 (가칭)문화통화 बैं크를 설치, 운영한다.
- 지역 문화통화 유통체계 기본 모델 개발 및 문화통화 유통관련 우수사례 보급·홍보에 역점을 둔다.
- 제1단계 사업 : 지역 문화통화 유통체계 기본 모델 개발
- 제2단계 사업 : 시범자치구를 선정하여 Pilot test를 실시한 후, 제도적 보완과 개선책 마련
- 제3단계 사업 :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기본 모델 개발
중기(2017-2018)	Pilot test
장기(2019-)	대전시 확대 시행

3)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3-1. 최저 문화복지 기준 설정 및 문화복지정책 연계

기본취지 및 목표

- 문화복지 영역별 문화향수 실태를 고려한 문화복지 기준선을 설정하고 공표한다.
 - 대전시 시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향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요 문화복지 정책대상 도출 및 문화복지 실태평가 등 다양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함으로써 정책 일관성 및 미충족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측은 문화복지의 영역 11개 비목 가운데 최저 교양오락비의 개념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비중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필수적 소비행태와 최근 여가 및 문화산업 팽창, 문화상품에 대한 욕구의 일반적인 증가경향을 반영하여 문화복지 최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문화복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선택적, 심리적 욕구를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제도적, 보편적 복지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정책기준선 제시가 필요하다.

사업내용

- 최저 문화복지비 계측대안을 제시하고 결정과정에 대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다.
 -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인 동시에, 주요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최저생계비의 구성비목 중 하나인 최저 교양오락비를 최저 문

화비로 명칭을 변경한다.

- 현행 마켓바스켓 방식에 의한 절대적 관점의 최저 문화비 계측 방식 및 주요 구성항목에 대한 검토 및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제시한다.

○ 최저 문화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 대전지역사회의 여건과 연계하되 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층 및 법정 최상위계층과 구분하여 지역사회 문화복지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문화빈곤층 및 문화차상위 계층 등 신규 개념 도출하고 규모를 추정한다.
- 최저 문화복지 기준을 근거로 한 대전시 문화 격차 해소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한다.

○ 문화복지 실태평가 및 정책설계 시, 최저 문화복지 기준을 연계하여 설계에 활용한다.

- 대전시 문화복지의 주요 정책대상 집단을 정의하고 규모를 추정한다.
- 소득계층별 문화복지 실태 및 문화향수 격차,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미충족 문화욕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보장성을 강화한다.
- 계층별,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생활권별로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대상별 최저 문화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 주요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정책목표 수립 및 정책설계(대상 선정 및 급여내용 등)의 근거로 연계 활용하여 확산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TF 구성, 최저 문화기준 관련 연구용역 실시
중기(2017-2018)	최저 문화복지 기준 공표, 최저문화비 계측 관련 지역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장기(2019-)	최저문화비 계측 관련 실태 조사 및 최저문화기준 정책적 활용

3-2. 문화바우처제도 확대 및 운영체계 개편

기본취지 및 목표

- 문화바우처의 확대 개편을 중심으로 보편적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 경제적 부담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향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향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의 확대 개편을 중심으로 보편적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 문화향수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여 문화복지를 매개로 지역사회 시민 통합을 지향한다.
 - 최소한의 문화복지 기준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계층별 문화향수의 격차를 축소하고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있어 소득계층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 문화를 통한 재분배, 문화정체성 형성,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 및 창의성 제고, 사회 연대성 강화, 대전시위상 제고, 문화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 및 문화에 대한 공적지원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공한다.

현황 및 필요성

- 문화향수의 양극화 또는 특정 소득계층 및 특정 집단으로의 편중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바로는 지역사회에 문화향수 기회의 양적, 질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연평균 문화관람률 및 횟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 기반시설 부재로 인한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수는 사치 또는 꿈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 문화바우처 제도는 문화향수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문화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와 아울러 문제점 또한 노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문화바우처 제도는 수혜대상 및 예산의 제약, 문화향수 영역 및 프로그램의 제약과 홍보 부족, 바우처시스템 운영체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 이 제도의 개선과 운영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 문화바우처 활용 문화예술 영역(프로그램)이 제약되어 있으며 정책홍보가 부족하다.
-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영역이 제한적이며, 공급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 심지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바우처의 사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제도의 존재 자체나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프로그램 선택에 제한이 있는 등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 문화바우처의 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이 있다.

- 문화바우처 운영주관은 대전시의 경우 문화재단이 하고 있으나, 정책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앓고 있다.
- 저소득계층이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전등록 및 신청하고 관람료를 포인트 형태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명칭만 바우처일 뿐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활용가치는 매우 낮아 수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업내용

○ 문화바우처제도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 문화복지의 경우 매우 선택적 소비영역으로서 문화향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폭이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 복지 분야보다 넓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화바우처 대상을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야 한다.
- 문화바우처의 잠재적 수요계층의 규모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정책대상 및 범위, 이에 따른 예산규모의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문화바우처를 통한 연간 지원수준은 연간 정액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서 소득수준 및 가구규모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수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바우처제도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 바우처제도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우 주목 받고 있는 시스템

- 임.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요자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바우처 시스템의 취지 및 장점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바우처 운영주체 및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 수혜자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문화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단지 비용부담 방식에 있어서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은 바우처를 통해 지불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급자 역시 바우처의 활용을 일반 문화상품권이나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기(2016-2016)	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TF구성, 문화바우처 사업평가 및 개편방안 관련 연구용역 실시, 문화바우처 개편을 위한 운영체계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협의체 설치 운영
중기(2017-2018)	문화바우처 개편방안 확정
장기(2019-)	문화바우처 확대 개편 시행

참 고 문 헌

- 김경욱(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6(2):31-52.
- 김민정·송주미(2004). 청소년문화복지 지역격차연구: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 회지』 제42권(11): 61-83.
- 김세훈(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라도삼(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라도삼·이호영(2003).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박미애(2009).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기회 지원 관련 사례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조원 외(2011). 문화바우처 사업 법제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2004년 11월 11일 서울시정개발원 연구원 주최 공개토론회.
- 양건열(2003). 주요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양정필(2006). 문화시설의 건립 관련 법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유지곤(2006).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문화관광부」
- 이원태(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춘희·이주형(2007). 공공시설 복합화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 52: 59-74.

- 정갑영·장현섭(1995).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광호(2010). “문화바우처 효과성 증대방안”. 『공정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 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돈문(2005).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1-35.
- 지금중(2006).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 「지역문화정책포럼」.
- 최옥채(2007).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복지의 개념화: 문화의 용례에 따른 해석학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 87-106.
- 최종혁 (외).(2009) “문화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질적 연구: 휴먼서비스 실천 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2): 145-182.
- 최준영(2006). 공공문화기반시설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지역문화정책포럼」.
- 추미경 외(2006).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문화 대 토론회 자료집
- 현택수(2006)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 26권: 101-122.
- 황익주(2002). 신도시의 문화향유체계와 시민의 삶의 질: 영국 밀튼킨즈 시의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8(1):171-209.
- Bawden, A. B.(2002). Access and The Cultural Infrastructure. Center for Arts and Culture. Art, Culture & the National Agenda Issue Paper.
- DiMaggio, P.(1987). Classification in Ar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4):440-455.
- DiMaggio, P., and Mukhtar, Toqir.(2004). Arts participation as cultural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1982.2002: Signs of decline? Poetics, 32(2):169-194.
- UCLA Center for Communication Policy.(2001). The UCLA internet report: Surveying the digital future, year two. Los Angeles: Author.

설문지

_____구 _____동

--	--	--	--	--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자치구 문화수준 비교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의뢰로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자치구 문화수준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시민문화향유의 지역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대전시의 구별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향수격차 해소 및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평소에 갖고 계시던 생각을 진솔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대전광역시의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대전발전연구원장

문의	책임연구위원 박노동	(042) 530-3523 (E-Mail : labourbak@djdi.re.kr)
----	---------------	--

면접일시	2015년 월 일		
면접원		검증원	
에디팅		코딩원	

1. 거주 및 생활환경 · 지역축제

- 귀하께서 대전에서 생활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자치구)의 생활환경은 최근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빠짐 ② 나빠짐 ③ 변화 없음
 ④ 좋아짐 ⑤ 매우 좋아짐 ⑥ 잘 모르겠음
-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자치구)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자치구)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빠질 것임 ② 조금 나빠질 것임 ③ 현재와 변함없을 것임
 ④ 대체로 좋아질 것임 ⑤ 매우 좋아질 것임 ⑥ 잘 모르겠음
-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단위)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의 항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문화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문화행사 및 공연 프로 그램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3 문화강습이나 강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4 동네의 문화기반시설이나 공간을 자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5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6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7 우리지역 주민들은 문 화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께서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지역축제, 거리축제 등)에 평균적으로 일년에 몇 번이나 참여하십니까?

- ① 1~2회 ② 3~5회 ③ 대부분 참여한다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7. 귀하께서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지역축제, 거리축제 등)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8. 귀하께서 가보신 축제(대전에서 개최된 지역축제, 거리축제 등)에서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 ②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 ④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
⑤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 ⑥ 주민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
⑦ 기타_____

2. 여가활동·생활체육 참가

1.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간 다음의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문항	한 적 없다	월 1-2회 정도	주 1회 정도	거의 매일
1-1 조깅/마라톤/산책	①	②	③	④
1-2 자전거타기	①	②	③	④
1-3 볼링/탁구	①	②	③	④
1-4 구기종목(축구 농구 등)	①	②	③	④
1-5 등산	①	②	③	④
1-6 골프	①	②	③	④
1-7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	①	②	③	④
1-8 노래방	①	②	③	④
1-9 클럽에서 춤추기(나이트 클럽 등)	①	②	③	④
1-10 종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1-11 동호회 모임 참가	①	②	③	④
1-12 창작활동(그림, 사진, 서예, 글쓰기 등)	①	②	③	④
1-13 강좌수강(영어회화, 컴퓨터 등)	①	②	③	④

2.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자치구)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자치구)에서 다양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 귀하께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하시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평일과 주말/휴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4-1. 평일의 어려움 () 4-2. 주말 및 휴일의 어려움 ()

- | | |
|-------------------|------------------|
|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②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 |
| ③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다 | ④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 ⑤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 ⑥ 함께 할 사람이 없다 |
| ⑦ 여가활동에 관심이 별로 없다 | ⑧ 기타 _____ |

5.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 인근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용이하지 않음 | ② 용이하지 않음 | ③ 보통 |
| ④ 용이함 | ⑤ 매우 용이함 | |

6. 귀하께서는 대전시의 지역간 여가여건 및 생활체육 격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① 매우 심함 | ② 심함 | ③ 보통 | ④ 양호 | ⑤ 매우 양호 |
|---------|------|------|------|---------|

7.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 | ② 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 |
| ③ 생활체육여건 취약지역에 적극적 지원정책 | ④ 생활체육분야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
| ⑤ 자치구의 생활체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대 | ⑥ 생활체육 부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 ⑦ 기타 () | |

8. 대전시의 지역간 생활체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간이운동장 | ② 축구장 | ③ 야구장 | ④ 수영장 |
| ⑤ 육상경기장 | ⑥ 실내체육관 | ⑦ 체력단련장 | ⑧ 테니스장 |
| ⑨ 골프연습장 | ⑩ 게이트볼장 | ⑪ 배드민턴장 | ⑫ 기타() |

3. 문화예술 활동

1.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1.8.1 - 2012.7.30.)동안 다음과 같은 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신 적이 몇 번 정도입니까?(한 번도 관람하지 않으셨다면 0번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횟수
1-1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 번
1-2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 전시회	() 번
1-3 클래식음악회·오페라	() 번
1-4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 번
1-5 연극(뮤지컬 포함)	() 번
1-6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번
1-7 영화	() 번
1-8 대중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 번
1-9 기타 ()	() 번

2.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1.8.1 - 2012.7.30.)동안 관람하신 예술행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귀하께서 대전지역에서 관람(참석)하신 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관람 경험이 많은 경우 가장 최근에 관람한 행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②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③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④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⑤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⑥ 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⑦ 기타 _____

4. 귀하께서는, 현재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1. 현재 활동하고 계시거나, 해 본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동호회는 어떤 분야입니까?

- ① 문학(창작, 비평, 독서 등) ② 미술(서양화, 동양화, 서예, 사진 등)
 ③ 음악(합창단, 음악감상 등) ④ 전통예술(국악, 탈춤, 국악기 등)
 ⑤ 연극 ⑥ 무용(고전무용, 발레 등)
 ⑦ 대중문화(노래, 밴드 등) ⑧ 영화(제작, 비평, 감상, 시나리오 등)
 ⑨ 문화유산(답사, 연구회 등) ⑩ 생활취미(도예, 자수, 꽃꽂이 등)
 ⑪ 여행 ⑫ 기타 (_____)

5.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환경이 열악하다
 ③ 비용의 부담이 크다 ④ 기타(구체적으로_____)

6. 귀하께서는 아래의 시설들을 최근 1년 간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다?

문항		횟수
6-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번
6-2	대전시민회관	() 번
6-3	대전시립미술관	() 번
6-4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 번
6-5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번
6-6	각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 번
6-7	도서관(이름_____)	() 번
6-8	박물관(대전시 소재)(이름_____)	() 번
6-9	기타(_____)	() 번

7. 귀하께서 이용하신 문화예술공간의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항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	매우 불만
7-1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①	②	③	④	⑤
7-2 대전시민회관	①	②	③	④	⑤
7-3 대전시립미술관	①	②	③	④	⑤
7-4 평송청소년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7-5 각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①	②	③	④	⑤
7-6 도서관 (이름:_____)	①	②	③	④	⑤
7-7 박물관(대전시 소재)	①	②	③	④	⑤
7-8 기타(_____)					

8. 귀하께서는 학교 교육 이외에 아래와 관련된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 본 것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문학 | ② 미술(서양화, 동양화, 서예, 사진, 디자인 등) |
| ③ 서양음악 | ④ 전통예술(국악, 탈춤, 국악기 등) |
| ⑤ 연극 | ⑥ 무용(고전무용, 발레 등) |
| ⑦ 연예(노래, 연기 등) | ⑧ 영화(제작, 비평, 감상, 시나리오 등) |
| ⑨ 문화유산 | ⑩ 생활취미(도예, 자수, 꽃꽂이 등) |
| ⑪ 기타(_____) | ⑫ 없다 |

8-1. (강습에 참여한 응답자) 귀하께서는 어디에서 강좌나 강습을 받았습니까?

- | | |
|--------------|-------------------|
| ① 공공단체(부설기관) | ② 대학교 부설 교육기관 |
| ③ 사회단체 | ④ 백화점·할인점 등의 부설기관 |
| ⑤ 사설학원·강습소 | ⑥ 동호회 모임 |
| ⑦ 개인레슨 | ⑧ 기타(_____) |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⑦ 기타(_____)

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⑨ 기타(_____)

10.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자치구)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12. 귀하께서는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격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함 ② 심함 ③ 보통 ④ 양호 ⑤ 매우 양호

13. 귀하께서는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격차(문화 불균형)’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 ① 지역간 문화 수준의 차이 ② 지역간 문화예술인의 차이

14.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 ②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
- ③ 문화여건 취약지역에 적극적 지원정책 ④ 지역 예술인의 지원 및 육성
- ⑤ 자치구의 문화경비 보조금 재원 확대 ⑥ 문화부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⑦ 기타 ()

15. 대전시의 지역간 문화 불균형 완화를 위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미술관 ② 영화관 ③ 도서관 ④ 박물관 ⑤ 소극장
⑥ 콘서트홀 ⑦ 구민회관 ⑧ 문화원 ⑨ 국악원 ⑩ 전시장
⑪ 기타()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사별 등

4. 귀하의 교육 정도는?

-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자영업 ② 판매/서비스직 ③ 숙련공(생산/노무직) ④ 사무 및 기술직
 ⑤ 경영/관리직 ⑥ 전문/자유직 ⑦ 농림업 ⑧ 가정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6. 귀하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중층 ④ 중상층 ⑤ 상층

7. 귀하의 직장(또는 학교, 주간에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인근 지역(자치구내) ② 대전시내 다른 구 : _____구
 ③ 대전시의 다른 지역 : _____시(군)

8.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의 종류(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다가구주택 ③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상가주택 ⑥ 기타()

9. 귀하께서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세+월세 ④ 기타()

10. 귀하 가정의 한 달 평균수입(세금을 제하기 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900만원 이상

-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정책연구보고서 2015-56

대전광역시 자치구 문화향유 차이 분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5년 11월 30일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협성문화사 TEL 042-627-8893 FAX 042-627-899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